Hi-Touch Gongju

공주고도 경관기준

해외 사례조사 연구집

2011. 12

공주시

공주고도 경관기준

해외 사례조사 연구집

2011. 12

제 출 문

공주시장 귀하

공주고도 경관기준작성연구 용역의

최종성과품으로 본 최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1. 12. 22

충남발전연구원

원장 박 진 도

CONTENTS

PART 01 ▶ 사례조사 개요 | 05

1. 조사목적 | 05
2. 조사개요 | 05
3. 조사지역 및 조사내용 | 05

PART 02 ▶ 사례지역 | 06

1. 드레스덴 | 06
2. 체스키크롬로프 | 39
3. 그라츠 | 45

PART 03 ▶ 사례조사 | 58

1. 가나자와 | 58
2. 교토 | 75

PART 04 ▶ 부 록 | 88

1. 드레스덴에 관한 기본정보 | 88
2. 체스키크롬로프에 관한 기본정보 | 91
3. 그라츠에 관한 기본정보 | 91

PART 05 ▶ 참고문헌 | 95

공주고도 경관기준 해외 사례조사 연구집

1. 조사목적

- 유럽 역사도시의 역사문화를 바탕으로 전통과 현대를 조화시켜 발전한 독일 및 오스트리아의 도시 조성사례를 검토하여 공주고도 경관기준수립 연구에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조사개요

조사국가	조사기간
독일, 오스트리아	2011. 10. 2 ~ 2011. 10. 11 (10일간)

3. 조사지역 및 조사내용

지역명	조사지역	조사내용
드레스덴	드레스덴 시	• 도시경관디자인 방향, 도시문화정책
	신시가지 중앙로길 답사	• 가로경관조성사례, 전통상품상가
	마르크트 광장	• 도시 공공공간 조성 사례
	엘베강, 쯔빙거 궁	• 역사 유적지 경관 및 교량디자인 사례
체스키 크롬로프	중심가로 답사	• 보행로, 전통상가
	블타바강 답사	• 수변공간
	도시건축물	• 스크라비토 건축 양식
	체스키크롬로프 성	• 성곽내부 및 조망경관
그라츠	무르강 인공섬 “무린젤”	• 계층간의 사회적 통합을 위해 조성된 건축물답사
	랜드마크 –“쿤스트 뮤지엄”	• 도시공간 재생 성공사례 답사
	바위산 – 슐로스베르크	• 그라츠 구시가지 경관조망

1. 드레스덴

1) 도시 개요

"백탑의 도시" 드레스덴(Dresden)은 독일 남동쪽에 엘베강을 끼고 형성된 작센주(州)의 주도(州都)로서, 중세에는 엘베강의 수로를 이용한 상업도시로서 발전하였고, 16세기 이후에는 작센의 수도로서 번영하였다. 작센주는 독일 연방공화국에 편입된 주들 중에서 가장 인구밀도가 높고 가장 산업이 발달되어 있어 독일 통일의 진원지 역할을 했던 곳이다.

옛 동독지역에 속한 드레스덴은 츠빙거궁전 등 바로크 양식의 건축물이 산재해 있어 '독일의 피렌체'로 불리고 있다. 한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됐으나 2009년 6월 엘베계곡에 다리를 새로 건설하였다가 '문화유산'으로서는 처음으로 등재가 취소되었다.
드레스덴의 구시가와 신시가지 사이를 흐르고 있는 엘베강은 체코와 독일 접경지역의 보헤미아 산악지방에서 발원한 블타바강(독일어 몰다우강)과 체코 프라하 북쪽 30㎞ 지점에서 만난다.

2) 도시의 역사 · 문화적 특성

드레스덴은 독일의 교통, 공업중심지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시였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의 폭격으로 유적지들을 비롯한 도시의 대부분이 파괴되었다. 이후 동독의 산업중심지로 재편되어 화학, 기계 등 연구기능과 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하였으나, 사회주의 경기침체가 이어져 볼품없는 도시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통일이후에 문화 유산들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전쟁의 상처를 딛고 예전 작센 왕국 주도로서의 명성을 찾기 위한 지역주민들과 주지방 정부의 노력으로 지금까지도 복원작업이 진행중이다. 드레스덴은 전쟁으로 파괴되었던 유적들을 본격적으로 복원하고, 유수의 연구소와 기업들을 유치하면서 산학도시로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주요 문화 중심부분인 구 시가지는 복원작업과 함께 시작된 문화도시계획 건설을 거의 마무리 짓고 거대한 문화공동체로 다시 발돋움 해가는 과정에 있다.

(그림2-1) 드레스덴 도시전경

(그림2-2) 기업연구소

독일 바로크 문화의 집산지이자 17세기 프리드리히 아우구스트 1세(Friedrich August)의 총애를 받은 예술과 문화의 도시 드레스덴(Dresden)의 주요 산업은 IT와 문화산업이다. 그 중에서도 세기를 거듭해 온 문화유산들과 2차 세계 대전 이후 문화 재건이 균형을 이루어 빚어 낸 문화산업은 드레스덴을 독일의 중요한 도시로 거듭나게 하는 촉매제가 되었다.

(그림2–3) 전후 드레스덴

(그림2–4) 문화예술

드레스덴은 예술 및 음악의 도시로도 유명하다. 드레스덴 국립미술관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100개 미술관에 꼽힐 정도이며, 많은 예술가들이 도시 곳곳에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어 역사적인 건물보전과 다양한 관광요소 창출에도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도시 드레스덴이 주목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산업과 문화가 골고루 발달한 뮌헨, 베를린과 같은 대도시들, 국제 박람회 등으로 주목 받는 프랑크푸르트 등에 가려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더욱이 드레스덴은 서독 지배하의 다른 대도시들과는 달리 동독 시절의 폐쇄되고 획일화된 문화산업의 영향으로 문화적인 발전이 미비하거나 거의 없었다.

대부분 독일의 고성들은 현대로 오면서 호텔 등으로 개조되거나 관광화 시키고 있다. 시내 중심가에 위치해 있는 문화궁전에는 다양한 관람객들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하기위해 모던한 콘서트나 국제회의장으로 사용하고, 유네스코(UNESCO) 자연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엘베 계곡(Elbtal)의 알브레차트베르그성(Albrechtsberg)은 중세의 분위기에 맞춘 클래식 공연과 콘서트를 위주로 공연이 이루어진다.

(그림2–5) 필니츠 궁

(그림2–6) 알브레차트부르크 성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받은 공습으로 드레스덴은 많은 사상자를 내며 초토화 되었으나 통일 이후 재건사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동독정부는 드레스덴의 문화유산이나 산업을 발전시키지는 못했다.

주변의 환경을 해치지 않으면서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독일의 기본적인 문화 마인드라고 할 수 있다. 엘베탈의 경우 주변에 젬퍼오페라(Semper Oper 음악공연 중심의 오페라 하우스), 본래 궁정 연회장이었던 곳을 리모델링해 사용하고 있는 츠빙어 궁전(Zwinger Schloss 미술관) 등은 유서 깊은 건물을 개조하여 의미 있는 관람을 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더불어 아름다운 경관과 어우러진 문화시설들을 배치하도록 함으로써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는 두 가지 효과를 누리고 있다.

3) 도시 경관현황

드레스덴은 두 가지 큰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한 쪽은 구시가지(Altstadt)이며 다른 영역은 신시가지(Neustadt)라고 부른다. 보통의 유서 깊은 도시들은 대부분 구 시가지와 신 시가지 두 영역으로 나뉘는데, 도시의 중심지는 1~2 시간 정도면 모두 돌아볼 수 있다. 도시의 특징은 건물의 배열 등이 무계획적으로 조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중앙역을 시작으로 걸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도시의 분위기를 체험하도록 도시 전체를 설계해 놓았다.

드레스덴은 문화유적과 문화시설 등이 한군데 집중되어 있는 형상을 하고 있다. 독일의 시가지들은 이전의 문화유산을 무시하고 다른 지대를 형성하는 것이 아닌, 기존의 유산을 중심으로 두고 뻗어나가기 때문이다. 엘베 계곡의 주변 역시 엘베 강 주변의 자연환경과 도시 중심부가 어우러져 있으며, 자연이 손실되지 않으면서 경계없이 잘 조화되어져 있다.

드레스덴의 구 시가지와 신 시가지는 엘베 강을 사이에 두고 나누어져 있으며, 문화궁전(Kulturpa-last), 젬퍼오페라(Semperoper), 츠빙어 궁전(Zwinger), 프라우엔교회(Frauenkirche) 등의 주요 시설은 구 시가지에 몰려있다. 전쟁 후 복원 사업을 시작하면서 지방정부는 30년전만 해도 밭이던 구시가의 주변부 땅까지를 아우르는 대대적인 문화도시 건설에 들어갔다. 복원작업에는 시민들과 주정부, 지방정부 및 사설문화단체들이 참여하였고, 2006년 하반기부터 점차 드레스덴은 옛 모습과 잘 조화된 지금의 경관을 갖추게 되었다.

도시 내부에는 바로크 양식의 건축물인 츠빙거 궁전, 프라우앤교회 등의 유서깊은 건축물들도 잘

보존되어 있고, 그 가운데 어울릴 것 같지 않았던 현대식 건물들도 제자리를 잡고 있다. 드레스덴의 엘베강 지역은 경관이 아름다워 "엘베강의 베네치아"라고 불리기도 한다. 우수한 자연경관도 있지만, 특히 르네상스 시대의 중세 문화유산이 상당부분 남아있다.

(그림2-7) 엘베강 조망산책로

(그림2-8) 엘베강 교량

'드레스덴 엘베 계곡'은 18~19세기의 경관적 요소들을 보존하고 있는 유산으로 엘베강변을 따라 약 18㎞에 이른다. 유산 지역 내에는 필니츠 궁을 비롯해 16세기에서 20세기에 걸친 드레스덴 시의 다양한 유산들이 위치하고 있다. 하지만 2006년 엘베강의 현대적 다리 건설 등을 이유로 4년간 보존에 관한 논의가 지속됐으나, 다리 건설이 강행돼 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세계유산 목록에서 삭제되었다.

(그림2-9) 새로 건설되는 교량

드레스덴시의 주거공간 개선에 있어서는 공간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광객과 주민간의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도시중심부에 거주공간을 배려하여 숙박과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드레스덴시에서는 시정에 대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인포박스 제도"를

운영하고, 주민이 제안한 사항에 대해 토론과 협의 과정을 거친 후 시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날짜마다 테마를 달리하여 지정된 분야에 대해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며, 주민이 제안한 내용의 처리결과를 통보함으로서 신뢰감을 주고 있다.
시에서는 이러한 인포박스 제도를 통하여 시민에게 만남의 공간과 시정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긍심을 부여하고 있다.

(그림2-10) 드레스덴 도시

(그림2-11) 주민의견수렴 공간 '인포박스'

(1) 건축물

- 드레스덴 도심 건축물의 층고제한은 기존의 바로크 건축물의 형태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건물의 창문과 외관색채는 정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르되 협의과정을 거치며 도시 주변 환경과 조화를 유지하면 높이는 규제하지 않고 있다.

(그림2-12) 건물신축시 옛건축물과 현대적 건축물의 조화

- 단, 옥외광고물이나 건물 개구부 높이는 규정에 따르도록 유도하고 있다.
- 규제적용 범위는 시내 중심지를 대상지로 하되 적용방법은 외곽으로 확대하면서 점차 변화를 준다.
- 구시가지의 옛 건축물과 현대적 건축물의 조화로운 구성을 추구하는데 있어서 일정부분은 남겨야 할 것인지 또는 전부 새롭게 지어야 할 것인지를 주민과 협의한 후 결정하고, 설계를 완성한 후에는 세밀하게 검토후 진행한다.

(2) 공공공간

- **공원**
  - 사용자위주의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동선을 고려하여 최소의 시설물을 배치한다.
  - 건물과 경계를 없애고 접근성과 연결성을 높인다.

(그림2-13) 공원의 비움

(그림2-14) 공공공간의 쾌적성

- **도로**
  - 도로를 따라 중앙에 녹지공간을 두고 벤치와 화단, 조형물 등을 설치하여 휴식공간으로 활용한다.
  - 차도와 인도의 높이를 낮추고 경계를 없애 자전거의 통행을 원활하게 한다.
  - 도로의 조망권 및 공간의 연결성이 나타나도록 한다.

(그림2-15) 중심가 휴식공원조성

(그림2-16) 도로의 조망성 높음

(3) 도시시설물

● **버스쉘터**

– 도시경관을 방해하는 요소를 최대한 배제하여 스테인리스스틸과 투명플라스틱 소재를 사용하여 경관과 가로시설물의 자연스러운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 바우하우스 풍의 기능주의적이며, 심플한 형태를 적용한다.

(그림2–17) 기능위주의 디자인

(그림2–18) 최소한의 구조로 설치

● **휴지통**

– 휴지통을 벤치와 같은 장소에 설치한다.

– 모던한 형태 및 소재색상을 사용한다.

(그림2–19) 기능중심으로 최소의 공간차지

(그림2–20) 주변환경과 색채조화

● **광고사인**

– 버스쉘터에 부착된 광고사인은 광고주로 부터 게재료를 받아 시설물 제작업체에서 관리·운영한다.

● 신호등

– 1961년 베를린의 교통심리학자 '칼 페글라우'에 의해 처음 디자인된 동독의 '신호등 맨'을 1994년 이후 사용하고 있다.

– 마르쿠스 헤크하우젠'에 의해 구 동독 신호등 맨의 독창적 가치를 문화적 브랜드로 부활시켰다.

– '신호등맨' 캐릭터를 전세계 도시에 진출시켰고 상품 판매장도 개설하였다.

(그림2-21) 캐릭터가 적용된 신호등 및 신호등맨(Ampelmann) 캐릭터

(4) 색채

① 현황분석

– 드레스덴 시내 바로크 건축물의 색채는 전체적으로 Gr(회색의), DI(칙칙한), Dk(어두운) 톤으로 구성되어 중후한 느낌을 준다.

– 집합주택의 경우 L(밝은), Y(아이보리), G, GY 등 따뜻한 계열의 색상으로 온화하고 차분한 이미지를 나타내며, 지붕컬러는 R계열의 주황색을 띄고 있다.

(그림2-22) 밝고 차분한 느낌의 색상을 띰

(그림2-23) 어둡고 칙칙한 소재색

4) 경관가이드라인

(1) 건축물 가이드라인

기준의 적용

도시재생의 기본토대는 신광장을 위한 도시건축적 – 구성적 컨셉이다. 1990년대에 새로운 전제조건들을 고려하여 점검 및 확장, 발달시키고 마지막으로 2002년 1월에 결정되었다. 여기에는 공식적인 공간의 구성과 8군데의 개별적 구획의 본질적인 기본특징이 정해졌다.

이는 세부적으로 나누어 건축되는 것으로 아직도 존재하는 도시평면도에 의거해 그전의 (긴) 복도 부분의 구조에 근접하며 역사적인 거리도 추가되었다. 프라우엔키르헤와 주거궁전과 같은 주위의 중심적인 역사적 건물들이 광장의 도시건축적 구성을 위한 기준이 된다. 새롭게 세부적으로 나누어진 건물은 가게, 식당, 사무실, 작은 호텔과 주택(아파트)이 될 것이다.

현대적 해석

신광장 주위 건물들의 높은 건축학적 질에 대한 요구는 모범건물 뿐 아니라 현대적 보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드레스덴 옛도시의 역사적 맥락을 보전하면서 동시에 현대적인 도심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해결방안으로 지금까지의 의도는 현대적이고 질적으로 귀중한 건물들이 전적으로 모범건물들 사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신광장은 이러한 방식으로 전통과 현대를 잇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 그곳에서 잘 지낼 수 있고 일을 잘 할 수 있어야 하며 드레스덴 주민들과 방문객들이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이어야 생생하고 활기찬 장소가 될 수 있다.

(그림2-24) 신광장의 건축물 형태

(2) 공공공간

➔ 광장, 도로, 거리

한 도시의 공적인 공간은 늘 그렇듯 항상 관심이 집중되는 곳이다. 시민들에게 열려있고 자유로이 오갈 수 있는 움직임의 공간이며 머무를 수 있는 영역이자 또한 만남의 장소이다.
그것은 무대와 관객의 공간이며 일상의 장소이고 통합의 장소이며 그곳은 다양한 사회적 집단이 모이는 곳이다. 그 공간의 질이나 기능성은 사적인 건축사유지에 투자를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을 마련한다. 여기에는 도시의 삶의 생생함이 표현된다. 도시는 하루의 다양한 시간에 따라 다양한 얼굴을 가진다.

➔ 컨셉

건물의 건축은 도시건축적 – 구성적 컨셉의 기본규정에 따라 신광장의 도로구성과 광장구성에 어떻게 맞출 것인가?
새로 생겨난 도로와 장소들은 역사적인 공간구조, 시야/조망관계, 기본요소들을 수용한다. 광장부지는 아주 크게 구성된 자유공간이며 프라우엔키르헤/교회의 장엄한 윤곽에 걸맞는 공간을 확보한다. 또한 광장은 보행자나 자전거이용자들이 배회하거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한다.

➔ 사회기반시설 개선

질 좋은 자연석 보도블럭들이 설치되었다. 전형적이고 정확하게 끼어 맞춘 화강암–표면의 보도블럭으로 된 보도와 전력을 절약하는 현대적 방식으로 갖추어진 역사적인 조명(팔이 여러 개 달린 촛대형)이 분위기를 조성한다. 보도와 광장공간, 도로공간의 높이 간의 차이를 가능하면 줄이도록 했다. 그럼으로써 더 넓고 크게 보이는 인상을 줄 뿐 아니라 보행자들이나 자전거 이용자들이 장애 없이 다닐 수 있게 하도록 한다.

(그림2–25) 노천카페, 프라우엔키르헤

(그림2-26) 옥외광고설치와 차양(파라솔) 설치

모두를 위한 좋은 규정

- 공공공간에서 쾌적함을 유지하기 위해 시의회는 신광장을 위해 광고규정과 구성에 대한 규정을 결정했다. 이 규정들은 건물이나 공적인 공간의 광고 설치 외 노천카페의 구성도 규제한다.
- 이러한 규제는 광장의 활용과 조망권을 시민에게 우선하여 동등하게 부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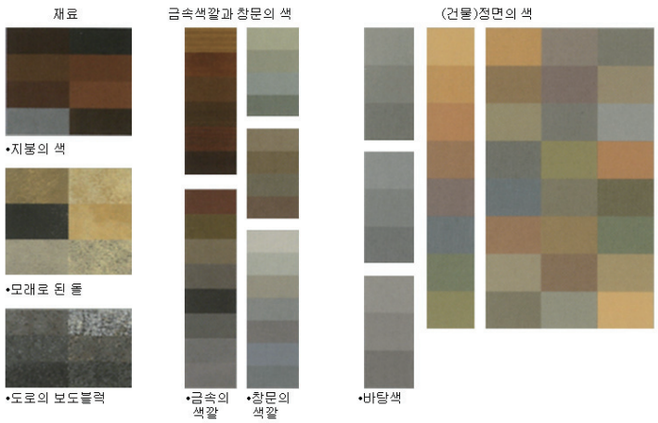
(3) 색채 가이드라인

색과 표면을 위한 기준

- 도시건축적-구성적 컨셉은 신광장 건물들의 색과 표면의 선택에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다.
- 그렇게 해서 지역 특징적인 재료들이 사용되어진다. 지역 특징적 색깔은 광장에 지배적이고 전형적인 작센(주)의 색을 조성하게 된다. 기준은 역사적 모범에서 도출된 것이다. 색의 컨셉에는 수많은 출처가 있다. 그것에는 카날레토의 유명한 도시정경 뿐 아니라 교재 혹은 파괴된 광장의 폐허속에 발견된 건물조각들도 포함된다.
- 건물정면 구성을 위해서 18세기에는 종종 흙색이 사용되었으며, 접합제로서 석회, 카제인(건락소) 혹은 기름색이 사용되었다. 그래서 건물정면은 현대적 정면보다 색상에서 단조롭게 보였다. 이는 하얀 석회를 칠하는 독특한 방식이 색의 작용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건물 정면의 색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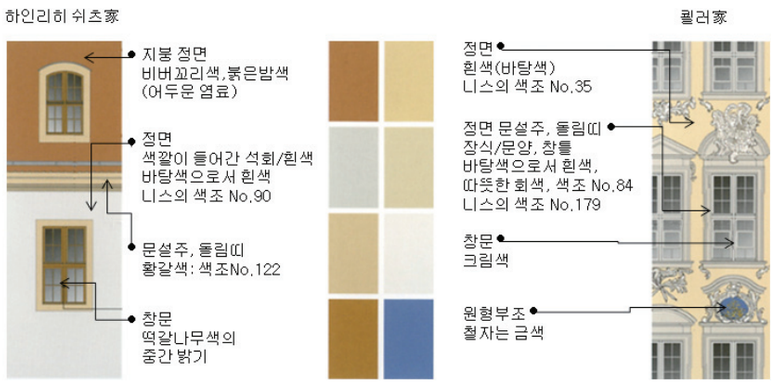
- 구역 전체는 (건물) 정면, 창문, 문과 다른 건물 부분들의 색채들을 위해 다양한 재료로 만들어진 스펙트럼(색상 띠)이 발달되었다. 조명이 더 밝은 광장공간과 좁고 어두운 막다른 골목 영역에서 색의 사용이 구분된다.
- 구획의 구체적인 건축을 규정함으로써 각 (건물)정면의 색상들이 정해진다. 색(도)판에 따른 색의 선택은 현장에서 공사 중 건축설계 상황을 점검하거나 수정하는데 이용된다.



(그림2–27) 체계적 색채의 개관(단면)

광장에서의 적용

– 오른 쪽의 표시들은 광장(건물) 정면의 다양한 색상으로 추상적인 인상을 보여준다. 그것은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에 의한 색들의 단순한 혼합으로 만들어 내며 조화로운 색의 다양성을 이루고 신광장을 위한 기본적인 구성 의도를 확실하게 나타낸다.



(그림2–28) 상세 색채 규정의 예

작센(주)의 전형적인 색채

– 색채의 구성은 18세기에 아주 달랐으며 모든 파사드(정면)은 입체적인 방법으로 도색되어 졌다. 일반 건축에서는 색칠을 한 건물들이 일반적이었다. 자연석은 문설주, 돌림띠(기둥이나 벽 윗부분에 수평으로 둘러친 장식용 돌출부), 장식/문양과 같은 특정한 요소에만 제한되었다. 이런 요소들은 또한 통일적으로 보이기 위해 색을 입혔다.

(그림2-29) 신광장/아우구스트 로(路) 색채의 전개

(4)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 광고간판은 도심지에서 상점을 홍보를 하기 위한 것이며 도시의 생명력을 불어 넣어준다.
- 광고간판을 제작할 때 건물의 건축적 디자인과 구성이 고려된다.
- 간판은 건물을 더 부각시키고 도시적인 이미지를 강조하는 효과를 주어야 한다.
- 주변 조건과 조화를 이루어 간판을 제작할 경우에는 전체적인 이미지가 조화로워 보이며 서로 더 돋보이기 위해 더 큰, 더 높은, 더 강렬한 색상을 사용하는 과대광고로 인한 혼란보다 아름답다.
- 간판을 설치해도 도시의 미는 가급적 유지되어야 하며, 강렬하거나 대형 간판에 의해 파묻혀서는 안 된다.
- 이 가이드라인의 목적은 도심지 상업지구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여 쾌적하면서도 수준 높은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다.
- 이 가이드라인은 각 위치에 따른 적절한 간판 시공사례를 소개하면서 권고사항을 제시한다.
- 드레스덴 도심지의 신시가지 구간에는 역사적인 건물과 현대건물이 모두 공존하는 구간으로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다. 이 지역에는 특히 드레스덴 시청과 같은 고대 건축물이 상당히 많다. 뿐만 아니라 바로크 양식의 고건축물과 1900년경에 건축된 건물 그리고 1990년대에 건축된 건물 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다.
- 주도로를 건너가면 70-80년대에 설치된 삭막해 보이는 가건물이 즐비해 있다. 하지만 일정한 형태로 정렬된 가건물들은 가로수길과 함께 녹색 지대와 조화를 이루고 있다.
- 이 지역은 녹지에 의해 감싸져 있다. 그곳에 1930년대부터 신도시의 빌라들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여기서도 고전풍의 빌라와 90년대의 신축건물이 공존하고 있지만 개방형 건물로 녹색지역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 도시의 이러한 구조를 기준으로 옥외광고 설치구간이 계획되었다.
- 옥외광고구간을 분류하는 기준은 시대별로 분류할 수 있는 건축물 단지 기준으로 하였다. 즉, 바로크부터 현대식 단지 가장자리 등으로 구분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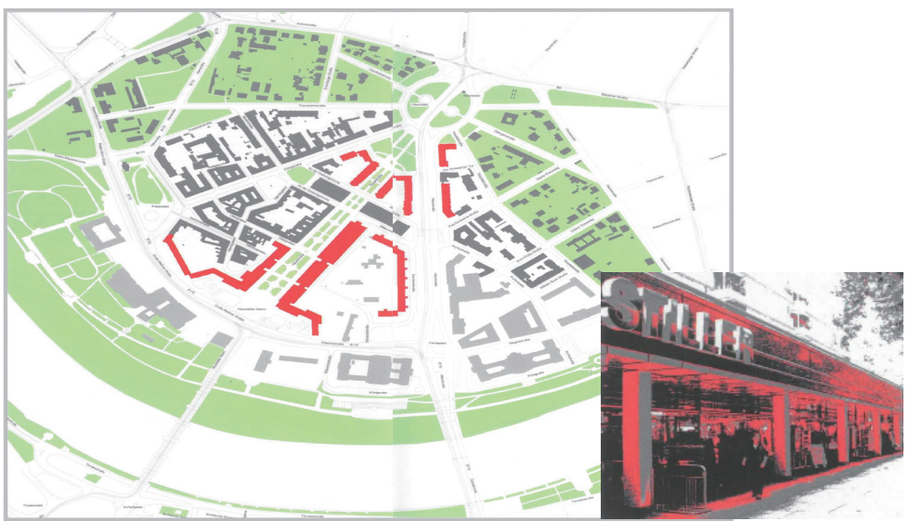
– 옥외광고 형태는 크게 세 가지로서, 수평 문구, 돌출형 간판 그리고 현판으로 나누어져 있다.

– 사업장의 업태나 사업장의 운영자 또는 품목을 나타내는 간판은 작센주 건축규칙에 따라 인가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도심지 신시가지 구간의 경우 오래된 건축물과 도심지의 주요 관광지가 있는 관계로 별도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그 밖에도 공공 부지를 사용하는 광고 방법이나 현판의 설치 등은 작센주 도로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간판을 설치하기 전 해당 관청에 사전에 문의하는 것이 권장사항으로 되어있다.

① 도심지에 분류

➔ 도로



➔ 가건물 (prefabricated building)

– 독일에서 70년에서 80년대 사이에 거주형으로 설립되었으며 외벽을 선명하게 부각시키고 있다.

– 지층 구간을 아케이드 형식 진입로로 구성하거나 넓은 도로면적에 가구가 사는 2층 밑에 개방형 상가 구간을 형성시킴으로써 도심 속에 활력을 준다.

② 도심지에 분류

➔ 도로

➔ 단지 가장자리 건축물

바로크와 현대

– 건물들은 명확하게 도로와 구분되어 있으며 건물의 외벽은 아름다움을 나타낸다.

– 건물 상호간의 차이를 부각시킴으로써 또는 외벽의 구성요소를 부각시킴으로써 생동감을 강조한다.

③ 도심지에 분류

➔ 도로

개방형 단지

– 단독 건물이 폐쇄형 단지에 감싸져 있다.

– 건물들은 보도블럭보다 후퇴하여 설치되어 있으며, 건물 앞에는 정원이 형성되어 있다.

– 고전풍에서 현대식 건물이 단순하지만 조화로운 균형을 나타내고 있다.

④ 도심지

도로

– 주도로

수평 글자체

– 개별 알파벳과 기호

– 컬러풀함, 배경 조명 또는 글 자체의 발광

– 개별 알파벳 그리고/또는 기호는 바탕 간판 위

– 컬러풀함, 배경 조명, 커팅(cut on)

- 재료 : 금속, 플라스틱
- 개별 알파벳으로 구성된 수평 글체
- 균형 있는 안배, 절제된 컬러감
- 금속 간판 위에 수평 글자체, 단어들이 꽂혀 있으며 자가발광

● 외벽 이미지

● 개별 알파벳으로 구성된 글자체

70년대의 가건물들

● 원칙

– 돌출된 지층의 파사드 띠에 주광고 부착이 제한되어 있다.

– 광고판을 부착함으로써 파사드 띠의 연속적인 느낌을 그대로 살려야 한다.

● 권장사항

– 수평 글자체를 파사드 띠의 약 절반 높이까지만 오도록 한다.(약 90㎝까지)

– 하단 모서리에서 최소한 15㎝ 위로 뛰어 하부 쪽에 시공하도록 한다.

– 지지대와 창문의 대칭성과 균형을 고려하여 배열하도록 한다.

– 글은 균형 있는 대칭을 이루어야 하며 2개 지지대 사이에 최대한의 간격을 두도록 한다.

– 개별 알파벳, 기호 또는 글은 쓰기 폰트(writingfont)로 한다.

– 케리어 간판 위에도 글을 적용할 수 있으나 이때도 글의 배열과 크기는 개별 알파벳의 폰트 종류에 따라 결정된다.

– 아케이드 밑에 외벽과 직각을 이루며 수평간판을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다.

– 색상 및 재료의 선택에 있어서 파사드 띠와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플렉시 글래스는 금지)

– 커트아웃식 폰트, 챈널식 글자체도 가능하다.

– 폰트는 발광 또는 배경조명을 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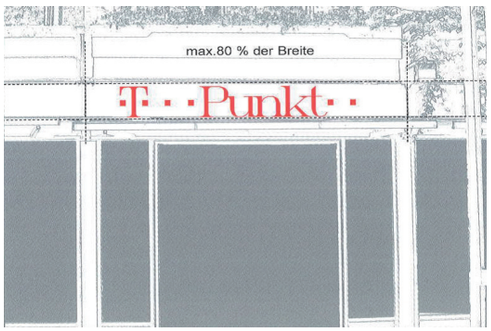
⑤ 도심지

도로

– 주도로, 시장 광장

● 지지대 위에 개별 문구로 구성된 수평 글체

● 대칭적인 배열, 공간의 최대높이가 활용



● 가로폭의 최대 80%, 세로폭 최대 45㎝

● 알버트 광장의 주도로 전망

● 보수된 외벽 위의 문구

수평글자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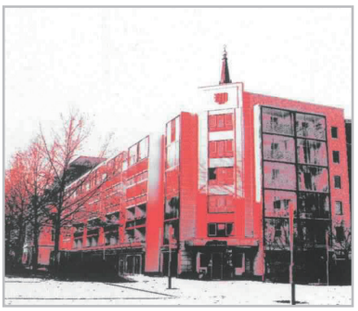
– 각 문자 그리고/또는 기호,
위에서 간접조명 또는 컬러 발광,
재료 : 금속, 플라스틱

– 캐리어판 위에 각 문자 그리고/또는 기호
위에서 간접조명 또는 컬러 발광,
재료 : 금속, 플라스틱

- 균형 잡힌 개별 문구, 모서리 지붕 위에 설치
- 재료의 적절한 선정 때문에 주광고의 우아함 강조. 작은 간판을 최대한 절제

- 최대 높이. 최대 가로폭의 80%

80년대의 가건물



원칙

– 지층 위의 문틀형 띠 위에 주광고를 부착한다.

– 물틀형 띠 위에 간판을 시공함으로써 연속적인 효과를 강조한다.

권장 사항

– 수평 문구는 돌출형의 장식적인 벽의 전체 높이 중 약 80%에서 95%만 차지해야 하며 (최대 45㎝) 이때 중간에 정렬되어야 한다.

– 브라켓의 축 기준으로 정렬, 대칭성을 유지한다.

– 최대 길이 : 브라켓 면적의 80%

– 개별 알파벳으로 시행하거나 글체 폰트로 실현한다.

– 케리어 간판 위에 문구를 올리거나 바로 직접 외벽 띠에 문자를 시공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때 정렬과 치수는 개별 알파벳의 폰트에 따라 정렬한다.

– 외벽 띠에 맞춰 재료나 칼라가 적절하게 선택되어야 한다.

– 간판에 글을 파서 표현하는 것도 가능하다.

– 글자체는 자가 발광 또는 위에서 간접조명을 하도록 한다.

– 쇼윈도 위의 글자체는 전체 외벽 띠보다 작아야 하며, 글자체는 동일한 서체를 사용해야 한다.

⑥ 도심지

도로

● 섬세하게 바로크풍 외벽과 조화를 이룬 금속 글자체 위에 그려진 수평 띠

● 양쪽 너트 기준 높이

● 전체 외벽에서 본 상점의 간판

● 금속 프레임 처리된 플렉시 유리 간판 위에 광고문구 적용

수평글자체

– 개별 알파벳 그리고/또는 문구는 배경 조명

재료 : 금속, 플라스틱

● 개별 알파벳 그리고/또는 문구는 배경조명
– 재료 : 금속, 플라스틱

● 개별 알파벳의 우아한 금속은 폰트와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섬세하게 구성된 외벽하고도 조화

단지 가장자리의 건축물 바로크와 현대

원칙

– 주광고는 지층 창문 위쪽 모서리와 지층 위의 벨트 띠 또는 2층 창문 하단 모서리 사이에 부착되도록 한다.

– 광고성 간판은 이 구간으로 제한되며 외벽의 섬세한 구성과 균형을 이루며 외벽을 가리지 않아야 한다.

– 폰트는 외벽을 장식하는 느낌이 나도록 채택되어야 하며 외벽을 잠식시키는 것을 금지한다.

권장사항

– 수평폰트는 사용할 수 있는 외벽 띠 높이의 30–60%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하며, 너트, 창틀 장식, 문 또는 외벽장식 등과도 조화를 이뤄야 한다.

– 외벽을 구성하는 요소가 가려지지 않도록 한다.

– 창문 축 기준으로 대칭적인 정렬, 해당 상점 구간 기준 길이의 최대 2/3를 사용하도록 한다.

– 폰트는 수평으로 쓰도록 하고 입체적인 개별 문자나 기호 또는 외벽 위에 직접 그려도 된다.

– 외벽의 컬러와 조화로운 색상 채택한다. (창문, 문, 장식 등)

– 금속의 색상을 그대로 살리는 것도 좋다. (회사 로고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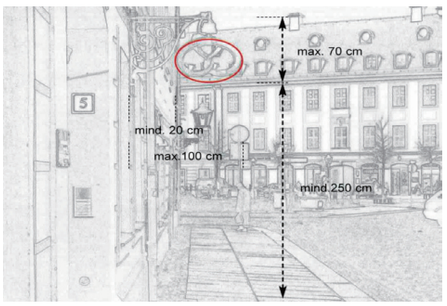
– 쇼윈도 같은 경우 문구를 유리 위에도 적을 수가 있다. 하지만 외벽에 부착된 간판글씨보다 분명히 작고 눈에 덜 띄어야 한다.

⑦ 도심지

도로

– 주도로 (바로크 건물)

● 제과점을 나타내는 예술적인 걸개와 매듭 모형



● 최대 70㎝, 최소 250㎝/최대 100㎝, 최소 250㎝

● 외벽의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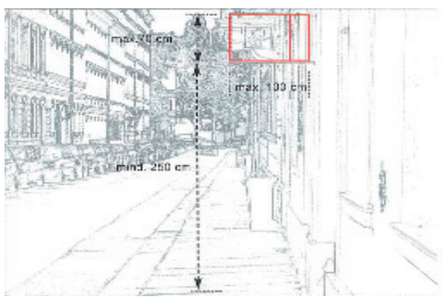
● 상세사항 : 시계 속 구조형 돌출 장식

돌출형 장식

– 각 문구나 기호를 돌출형 장식으로 꾸밀 수도 있다.

재료 : 금속, 플라스틱

● 투명하게 보이는 돌출형 간판은 모던하면서도 깔끔한 느낌을 줌
● 재료와 색상은 외벽과 비교했을 때 절제되어 있음



● 최대 70cm, 최대 100cm, 최소 250cm

단지 가장자리 건축물 바로크 – 현대

● 원칙

– 돌출형 간판은 수평 문구를 보완하거나 이를 대처할 수가 있다.

– 좁은 도로 공간에서 수평 문구가 바로 상점 앞에서만 보이는 경우, 또는 교차로에서도 곡선으로 빠진 골목을 위한 표시기능을 해야 한다.

– 설치위치는 지층 창문의 상부 모서리와 지층 위의 상부 장식 띠 또는 2층 창문의 하부 모서리 사이에 배치하고, 광고용 지지대를 더 낮출 수도 있다.

– 돌출형 간판은 가급적이면 경량 재질이어야 하며 투명해야 하고 도로 구간을 침범하는 폐쇄형 표시판이나 박스로 구성되면 안되며 조명을 사용하거나 자가발광되어서도 안된다. 돌출형 간판은 외벽의 섬세한 구성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

● 권장사항

– 상점 1개 당 허용되는 돌출형 간판은 최대 1개 이다.

– 부축벽이나 부축벽의 길쭉한 면의 경우 : 돌출형 간판을 축과 맞춰 정렬하도록 하며 건축 구조물에 설치하도록 한다.

– 외벽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가려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정렬을 할 때 가급적이면 2개의 출입구 사이에 또는 대문이나 출입문 기준으로 대칭적으로 설치 하도록 한다.

– 돌출형 간판 밑으로 관통높이는 최소 2.5m이어야 한다.

– 돌출형 간판의 높이는 최대 0.7m이다,

– 돌출 정도는 최대 1.0m

– 외벽의 색상 기준으로 컬러 채택 (외벽, 장식, 창문, 현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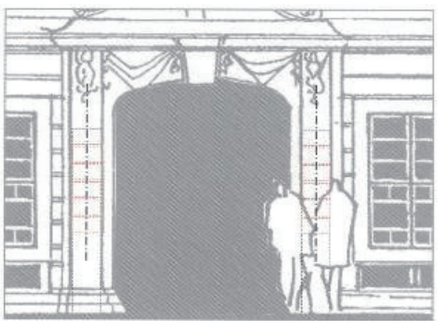
– 투명성 강조 (“챈널방식”)

⑧ 도심지

➔ 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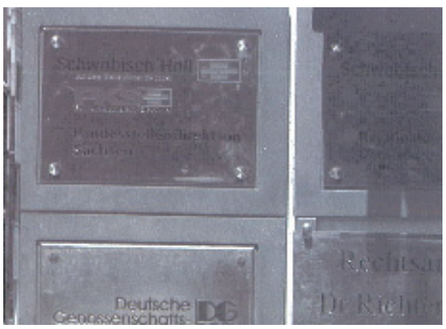
– 주도로 (바로크 건물)

● 투명 유리판은 화려한 색상을 사용해도 절제되어 보이고, 밑의 외벽을 더 강조하는 효과



● 부축벽 폭

● 상세 : 투명유리를 이용한 간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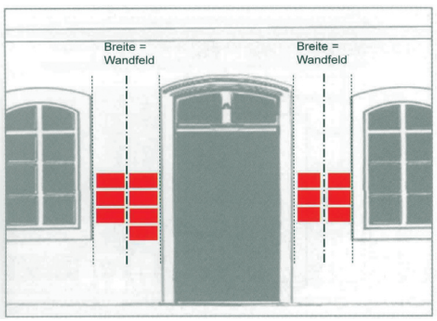
● 상세 : 금속 너트 위의 황동 간판

간판

– 현관문 구간, 미조명

– 여러 간판 : 크기와 재료를 조화롭게 통일

– 재료 : 금속, 돌, 아크릴, 에나멜



● 재료, 바탕 그리고 크기를 모두 조화를 시킴 황동 간판은 아연 프레임 처리

● 폭 = 벽 구간

단지 가장자리 구조물 바로크 – 현대

● 원칙

– 사업장이 있다는 표시로 건물의 현관에 부착된다.

– 현관에서 특히 간판이 여러 개 설치되어 있는 경우 장식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재료를 선택하도록 한다.

– 그렇기 때문에 현관의 디자인과 조화를 이루고 정돈된 느낌을 주고 가급적이면 동일한 재료와 형태를 선정하도록 하며 너무 크거나 너무 많은 간판을 설치하지 않도록 한다.

● 권장사항

– 현관과 정렬할 때 : 부축벽에 수직으로 정렬한다.

– 현관과 그 옆에 있는 창문기준 대칭을 이루도록 한다.

– 간판의 크기는 최대 0.25㎡까지 허용한다.

– 내구성이 높은 고급 자재 사용, 가령 금속, 돌, 아크릴 유리, 에나멜 등을 사용한다.

– 여러 간판을 한 곳에 설치하는 경우 디자인은 서로 조화를 이뤄야 하며, 동일 재질이어야 하고 동일한 서체를 사용하도록 한다. (또는 합동 간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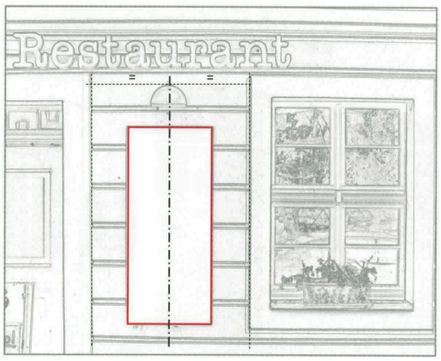
– 간판의 컬러, 서체와 기호 등은 외벽의 컬러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외벽 면적, 장식, 창문, 현관 등)

– 간판의 조명은 가급적 피하도록 한다.

⑨ 도심지

도로

– 주도로 (바로크 건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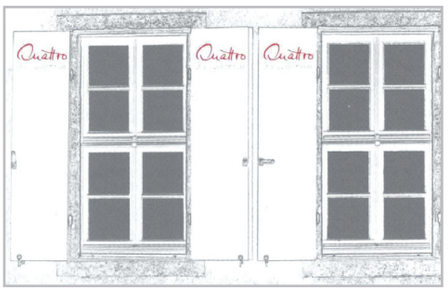


- 최신 상품 홍보를 위한 광고판이 창문과 현관 사이에 장착한 칠판

- 병행 : 개별 알파벳으로 수평 진행, 그리고 창틀에도 표시
- 상세사항 : 광고판으로 활용된 흑판

대안적 광고

– 문구를 다른 곳에 적용한 예



- 외벽 광고를 최대한 절제한 경우 또는 현수막만 사용하는 경우, 별도로 창문이나 창틀에 광고 문구 적용

단지의 가장자리 건축물 바로크 – 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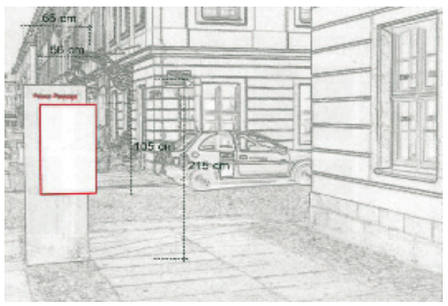
- 원칙
  - 문구 또는 돌출형 간판의 보완 또는 대체된다.
  - 광고성 아이디어를 건물에 적용해도 된다.
  - 독특한 아이디어는 도심지의 이미지를 더 생동감 있게 해준다.

- 권장사항
  - 글자를 창틀 또는 천막 위에 최대한 절제되게 써도 됨(최대 10%) 이럴 경우 건물에 다른 광고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⑩ 도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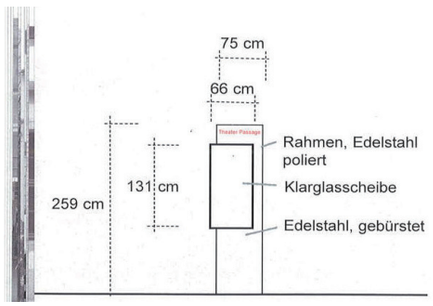
도로

- 쾨닉스 가에서 현판 설치, 획일적인 디자인, 구리로 되어 있으며 투명 유리로된 발광물체를 삽입



- 작은 바둑판 무늬 형, 도로 위 경계선 부위에 설치

주도로에서 현판의 모양



- 스테인리스 금속 프레임, 폴리싱 (Polishing : 마무리광택) 투명유리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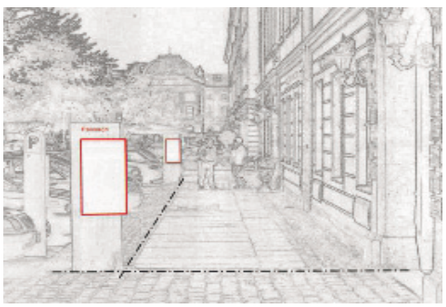
- 문구가 있는 현판

현판

– 서로 통일된 디자인을 갖춘 현판, 배경조명

– 재료 : 금속, 플라스틱 또는 유리

● 쾨닉스 가에서 현판의 설치 예, 일본 궁전 쪽 전망은 제약 받지 않고 그대로 유지



● 작은 바둑판 무늬 형태 도로 위에 설치 예

단지의 가장자리 바로크 건축물

● 원칙

– 도로 앞에 있지 않고 안쪽에 있는 상점들은 홍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상점을 안내하는 독립식 현판을 설치한다.

– 개별 홍보를 위해 합동 간판 위에 상호명을 기입한다.

● 권장사항

– 건물 현관 또는 부지 경계선에 설치한다.

– 현관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현관 필라를 기준으로 한다.

– 한 도로에 설치되는 모든 현판은 동일한 재료, 포맷과 크기를 가져야 한다. (그림 참조)

– 백색 또는 간접 조명 등으로 절제된 방법으로 배경조명 가능하다.

– 합동 간판에서 개별 상호 홍보면적은 최소 15㎝ 높이에 설치한다.

⑪ 도심지

도로

● 각 글자는 2층의 돌출부 구간에 설치, 현대식 외벽은 매끄럽게 미장

● 건축물에 사인 설치 효과

● 부지 경계선보다 뒤에 설치된 현판 예

수평 문구

– 개별 단어 그리고/또는 문구, 배경조명

– 재료 : 금속, 플라스틱

● 사무실 건물의 외벽 2층 구간에 설치된 개별 상표

개방형 건축물 현대

- 원칙
  - 주광고는 지층 창문 상부 모서리와 2층 창문 돌출부 하단부 사이에 설치하도록 한다.
  - 외벽과 현관 등의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외벽과 현관을 가리면 안되며 폰트는 외벽을 장식하는 효과를 가져도 되나 도드라지면 안된다.
  - 예외적인 경우에 배경 조명 사인 간판을 설치해도 되며 지층이나 2층에 설치가 가능하다.

- 권장사항
  - 수평 문구는 해당 외벽 띠 전체 높이의 30–40%만 차지해도 되며, 이 때 돌출된 외벽 구간, 창문과 문이나 장식 등의 디자인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 외벽 길이의 최대 2/30이다.
  - 개별 문구나 개별 기호로 작업하고 금속이나 플라스틱으로 형성하도록 한다.
  - 색상은 외벽의 색상을 고려하도록 한다. (외벽 표면, 장식, 창문, 현관 등)
  - 금속 색상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 배경조명을 허용한다.

⑫ 도심지

도로

- 균형있는 문구를 정확히 외벽 구조체와 일치시킴, 각 알파벳의 금속 재질은 고급 이미지를 강조

● 전체 외벽에서 보이는 이미지

● 샌드스톤(sandstone) 벽 위에 금속 알파벳

수평 문구

– 각 알파벳 그리고/또는 문구, 조명되지 않거나 배경조명

– 재료 : 금속

● 금속으로 구성된 각 알파벳, 벽의 이음부와 균형을 이루어 설치

개방형 건축물 역사적

● 원칙

– 전체 건물이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경우(호텔 등) 문구는 건물 상부에 설치될 수가 있다.

– 이때 건물의 외벽과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이 채택되어야 하며 고급 재료 또는 금속 재료를 이용하여 건물을 가리기보다는 장식적인 요소가 가미할 수 있도록 한다.

– 이런 경우, 별도의 외벽 장식은 피하도록 한다.

● 권장사항

– 수평 문구는 적절한 외벽 띠의 전체 높이 중 30–40%만 적용될 수 있도록 하며, 이 때 돌출된 외벽 장식, 창문, 현관 또는 장식 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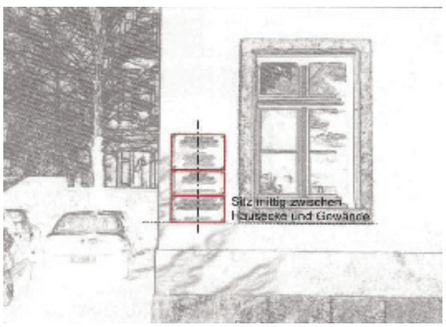
– 전체 길이 : 적절한 외벽 구간의 최대 2/3

– 조명을 하지 않거나 배경조명, 금속성 개별 문구 또는 상표

⑬ 도심지

도로

● 건물외벽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샌드스톤(sandstone:사암) 이나 미장에는 절제된 유리표시판 사용



● 건물의 모서리와 벽 장식 사이에 대칭되도록 설치

● 도로 전경

● 회사 간판

● 간판

– 미조명

– 여러 간판 : 크기와 재료가 서로 조화

– 재료 : 금속, 돌, 아크릴, 에나멜

● 벽의 무늬와 재질에 잘 맞춰 합동간판이 설치

● 너트 사이의 높이

개방형 건축물 역사적

● 원칙

– 사업장이라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건물 입구 또는 바로 입구 앞에 있는 설치물 또는 벽에 장착되어 있다.

– 현관에 여러 간판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더욱 더 장식성이 뛰어난 재질을 사용하도록 한다.

– 이 때 현관의 디자인을 고려해서 간판의 디자인과 정렬방법을 채택하도록 하며 가급적이면 비슷한 재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 간판의 색상, 폰트와 상표 위치는 외벽의 색상 또는 재질 그리고 장식에 맞춰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외벽 표면, 장식, 창문, 주축, 현관, 금속 장식 등)

(그림2-30) 체스키크롬로프 마을전경

2. 체스키크롬로프

1) 도시 개요

체스키크롬로프는 체코의 남부지방에 위치한 작고 아담한 중세풍 도시로서 14~16세기에 수공업과 상업으로 번성기를 누렸다. 13세기에 건설된 영주의 성을 중심으로 중세 자취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도시이다.

체코가 공산 국가였던 시절에는 낙후된 도시에 불과했던 체스키크롬로프는 1992년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면서 주목을 받게 되었다. 300여 개 이상의 건축물이 문화유적으로 등록되었으며 도시 전체가 유적이라 할 수 있다.

2) 도시의 역사 · 문화적 특성

13세기 남 보헤미아의 비테크 가(家)가 이곳에 자리를 잡고 고딕 양식의 성을 짓기 시작한 것이 체스키크롬로프의 시작이다. 이후 르네상스, 바로크 시대의 건물들이 일부 추가 되었으나 18세기 이후에 지어진 건물은 거의 없으며, 중세 마을의 특징이 가장 잘 살아 있는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영주의 성은 16세기에 르네상스식으로 개축돼 현재의 모습을 띠게 되었다. 성은 건물로 둘러싸인

광장들로 구역화돼 있는데 제1광장부터 제5광장까지 있다. 제1광장은 하인이나 기능공들의 중심 무대였다. 제2광장은 제1광장의 더 위쪽에 위치한다. 제2광장은 영주가 살던 곳으로 고딕과 르네상스 양식 건물들이 서 있다. 사교장으로 사용되던 제3광장과 제4광장, 제5광장 등이 있는데 광장들은 나름대로 목적을 갖고 세워졌다.

13세기 세워진 체스키크롬로프 성은 프라하 성에 이어 체코에서 두 번째로 큰 성이다.
16세기에 르네상스 양식으로 개축하면서 둥근 지붕의 탑과 회랑 등이 추가 되었다. 성 안에는 영주가 살던 궁전과 예배당, 조폐소, 바로크식 극장과 정원이 재현되어 있어 중세 귀족의 생활상을 느낄 수 있다. 구시가의 중심지는 중세 분위기가 그대로 남아 있는 스보르노스티 광장으로 주변에 후기 고딕 양식의 성비투스 성당 등 중세, 르네상스 시대의 건축물이 늘어서 있다.

(그림2-31) 체스키크롬로프 골목

크롬로프에서는 매년 6월 음악축제가 열린다. 참석자들은 13세기 초 건축된 크롬로프 성의 안마당에서 바로크 시대 악기로 연주되는 중세 음악에 귀를 기울이거나 18세기 실내장식이 그대로 남은 2층 가면의 방에서 열리는 귀족적인 가면무도회에 참석한다. 봄이 오면 체스키크롬로프의 음악축제가 이곳에서 펼쳐진다.

크롬로프 골목길은 포장석으로 다듬어져 있고, 차 한 대가 겨우 빠져나갈 수 있는 곳이 많다. 관광객을 위한 상점, 호텔, 레스토랑, 카페, 은행, 관광안내소 등은 시청사 앞 광장 주변에서 만날 수 있다. 방문객들의 시선을 끄는 작은 박물관과 기념품숍, 펜션, 레스토랑 등이 전형적인 중세유럽 분위기를 연출한다.

3) 도시경관

나무가 자란 언덕 수풀 사이로 펼쳐지는 이 도시는 언덕을 의지한 채 건설된 붉은색 지붕의 집들이 타운을 형성하고 있다.
도시를 한 바퀴 감싸듯 휘돌아가는 블타바 강변을 따라 형성된 건축물들과 그 틈바구니를 차지한 좁다란 골목길은 많은 볼거리를 제공한다. 크롬로프는 성과 농장으로 이뤄진 중세시대 장원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는 소규모 도시다.

S자로 흐르는 블타바 강물이 이른바 수태극 산태극 지형을 만들었다. 인공적으로 해자를 건설할 필요도 없이 강물과 산의 지형에 의해 보호받는 지형이다. 강물은 영주의 성을 감아 돌아 흐르고 다시 마을을 한 바퀴 돌아서 S자를 그리며 흐르는 강변을 따라서 건축물을 세웠다. 전형적인 성곽 타운에서 빨간 지붕과 하얀 벽을 가진 건축물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어디에서나 잘 보이는 성의 망루는 원기둥 형태 탑으로 이 도시의 랜드마크 구실을 한다. 육교 형식으로 건설된 회랑에서 내려다보면 이 중세 도시의 전체 모습을 조망할 수 있다.

(그림2-32) 체스키크롬로프 전경과 성(城)

(1) 건축물

- 체스키크롬로프의 건축물은 스크라비토 양식으로 단장한 건물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 양식의 건축물들은 평면적 공간을 입체적 공간으로 착시하도록 유도하는 특수하게 건축된 미학적 건물이다.
- 회랑의 형태를 띠고 있는 건축물도 있으며, 하나의 형태지붕에 2건물로 구성된 건축양식이 돋보이며, 입면형태가 다양하게 설계되어 마을경관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다.

(그림2-33) 스크라비토 양식

(그림2-34) 다양한 입면형태

(2) 공공공간

- 마을중앙에 소규모 광장이 조성되어 중심지 역할을 하며, 작은 골목길과 연결되어 있다.
- 광장으로의 차량진입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골목길 및 광장은 사고석으로 조성하여 고풍스러운 느낌을 준다.

(그림2-35) 마을 중앙광장 및 연결된 골목길

(3) 시설물

- 마을도로변의 휀스는 철제를 사용하여 설치되었으며, 장식성은 배제되었다.
- 체스키크롬로프성내 엄지손가락 형태의 독특한 사인물이 설치되어 있다.

(그림2-36) 휀스

(그림2-37) 안내사인, 벤치

(4) 색채

- 건물의 입면색채는 Y계열의 밝은 아이보리색과 GY, YR계열의 연한 파스텔톤의 색조를 띄고 있으며, 지붕색채는 짙은 주황색을 주조색으로 하여 전체적으로 톤배색이 조화를 이루고 있음.

(그림2-38) 중저채도, 중명도의 편안한 느낌의 색상 배색

(5) 옥외광고물

- 간판은 건물의 일부분으로 거리의 이미지에 부합되도록 형태나 색상, 크기등을 일정한 가이드라인에 의해 설치되었다.

(그림2-39) 옥외간판의 색상과 형태는 건물과 보행로 색상과 조화

(그림2-40) 그라츠 시청앞 광장

3. 그라츠

1) 도시 개요

그라츠시는 오스트리아 남동쪽 슈타이어마르크주의 주도이며, 1,0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인구 25만명의 중세 도시로 반경 50㎞ 동쪽으로는 슬로바키아와 헝가리, 남쪽으로는 슬로베니아와 인접한 오스트리아 제2의 도시이다. 그라츠의 도시성격은 엄격함이라는 독일 문화권의 특징과, 개방성 이라는 발칸 문화권의 특징을 모두 지닌 도시이다.

이같은 양면성은 그라츠를 이해하는 코드가 될 수 있다. 도시의 동서를 가로지르는 무르강을 경계로 강 양안의 공간구조가 상이하고 사회 · 경제적인 불균형 현상이 빚어진 것은 그라츠가 지닌 양면성의 부정적 측면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전통과 현대, 혹은 개발과 보존처럼 함께하기 힘든 양면적 가치들이 공존하는 것은 이 도시의 새로운 활력이 되고 있다. 그라츠는 '2003년 유럽연합이 선정한 유럽 문화의 수도 (Cultural Capital of Europe 03)'로 선정되기도 했으며, 도시가 가지고 있는 풍요로운 매력은 잠재적 가치가 되기에 충분하다.

(그림2-41) 그라츠 가로경관

그라츠는 합스부르크 제국 시절부터 20세기에 이르기까지 은퇴한 중앙 정부 관료들과 부유층들 이 쾌적하고 평화로운 생의 말년을 보내는데 가장 선호됐던 일명, 연금자 도시로 더 사랑받았던 도시였다. 수도 빈 보다 주거비와 생활비가 저렴하다는 경제적 이점 뿐만 아니라 알프스 산맥 끝자락 남부에 자리하고 있다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전원적인 풍경과 질좋고 풍부한 농산물와 포도주가 즐비한 목가적 도시였기 때문이다.

그라츠가 유럽 문화 수도라는 새 이름를 내걸고 그라츠2003 행사를 주최하게 된 것도 바로 보수적이고 조용한 고도를 활기차고 박동하는 문화 도시로 재탄생시키자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도심을 가로 질러 흐르고 있는 무어강(Mur River)을 끼고 오른편으로 발달해 있는 구도심 구역 곳곳에는 슐로스베르크, 글로켄투름 시계탑, 카톨릭 고성당들, 요하네움 도립도서관, 시청 고건물, 그라츠 오페라하우스, 극장, 근현대 미술관 및 전시장 등이 자리해 있다.

수도 빈의 도시 계획을 본 딴 원형 대로(ring boulevard)가 옛 고도 중심부를 둘러싸고 있으며 시립 공원과 그라츠 대학 캠퍼스가 그 주변에 펼쳐져 있다.

2) 도시의 역사 · 문화적 특성

그라츠는 수세기 동안 합스부르크 통치하에 있었던 중부유럽의 한 주요 도시의 살아있는 전통을 나타내는 도시이다. 이 오래된 도시는 중세부터 이어져온 다양한 건축 양식과 예술 사조 및 주변 지역의 문화적 영향이 혼합되어 이룬 결정체라고 할 수 있다.

그라츠 역사 지구는 독일, 발칸 반도, 지중해가 교차하는 곳이라는 위치 때문에 다양한 예술과 건축 사조의 영향을 반영하고 있다. 서로 다른 여러 지역 출신의 건축가와 예술가들은 이곳에서 자신들을 강력하게 표현하였고 뛰어난 작품들을 만들어냈다.

역사적으로 동쪽으로부터는 서부 유럽으로 진입을 노리던 오토만 튀르크 제국으로 부터의 방패막 역할을 했고, 20세기 냉전기에는 서유럽 자본주의 세계와 과거 공산주의 세계 사이에서 동서 유럽 간의 중간 통로 겸 양세계 간의 관문 역할을 했던 곳이다.

그라츠 도시답사는 고딕 양식을 대표하는 건축물이기도 한 '시청사(TownHall)'가 위치한 광장이 출발점이다. 시청 광장은 노점상들이 들어서 광장의 표정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고 있으며. 광장 주변으로는 그라츠 전역에서 출발한 전차들이 지나다니며, 전차들은 그라츠의 풍경을 낭만적으로 만드는 요소이다.

고딕, 르네상스, 바로크, 유겐트 양식까지 중세부터 지금까지 온갖 건축양식을 모아놓은 듯한 도시는 다양한 색채로 나타나며, 특히 16세기 건축물들이 그대로 보존된 구시가는 오래된 역사도시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
시청광장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은 각종 쇼핑 상점과 레스토랑, 바 등이 있으며, 광장은 관광 뿐만 아니라 그라츠 시민들의 삶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곳이다.

각종 볼거리는 시청사를 중심으로 주변에 모여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도시 곳곳의 건물 꼭대기에 위치한 큰 시계들이다. '시계의 도시'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을 만큼 시계는 그라츠를 상징 하는 랜드마크(Landmark)역할을 한다.

랜드하우스(Landhaus)는 이탈리안 르네상스의 업적으로서 16세기 이탈리안 건축가에 의해 지어진 이곳은 아치형 기둥들이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그라츠에는 건립된 지 800년된 유서 깊은 호텔과 오페라하우스, 대학과 박물관 등이 남아있다.

(그림2-42) 전차 정류장

(그림2-43) 바로크양식의 그라츠 시청건물

3) 도시 경관정책

그라츠 역사 지구를 형성하는 도시 경관은 여러 시대의 건축 양식이 조화롭게 통합된 탁월한 사례이다. 각 시대의 특징이 그 시대의 전형적인 건축물로 그리고 흔히 걸작으로 나타나며, 이 도시의 역사적 발전이 도시의 겉모습에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다.

무르강 동쪽의 그라츠 구도심은 전형적인 중세 도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슐로스베르크 언덕을 중심으로 구릉을 따라 상점가가 줄지어 있고 평지로 내려오면 시청, 성당, 광장을 중심으로 방사형 도시가 전개되어 있다. 슐로베르크산 시계탑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구도심의 부감경관은 양호한 상태이며, 도시건물의 지붕은 박공형태로서 주황색으로 통일성을 유지하여 고풍스러운 중세도시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

구도심은 르네상스 양식의 엄격한 형식미가 인상적인 예수회수도원, 바로크 양식의 지붕과 화려한 프레스코 벽화가 잘 어울리는 상가 건물, 탈르네상스 건축양식인 매너리즘 양식의 페르디난드 2세 유해안치소 등 다양한 양식의 건물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V자를 거꾸로 한 모양으로 꺾인 붉은 지붕들이 잇대어 있는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도시경관을 구성하는 한 요소로 작용한다.

그라츠가 가지고 있는 도시매력은 로마네스크 양식에서부터 고딕양식까지, 아르누보풍에서 초현대적인 것까지 골고루 느낄 수 있는 것이 도시의 건축적 특징이다.
중부 유럽의 취향을 대표하는 르네상스풍에서 부터 지중해풍까지 다양한 도시의 경관은 숨겨진 정원, 전통과 현대, 고전 음악에서부터 현대적인 재즈, 문학과 다채로운 축제 등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슐로르베르그산 정상에서 조망되는 도시의 부감경관은 상당히 양호하며, 전통건축물과 현대적 구조물 및 건물들이 섞여서 도시의 풍경을 연출하고 있다.

(그림2-44) 그라츠 시내 부감경관(俯瞰景觀)

그라츠에서 구도심 보존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1970년대초, 시에서 '친(親) 자동차 정책'을 내세워 구도심의 중심 도로이자 보행자도로였던 하렌거리를 왕복 4차선의 자동차도로로 만들고, 시외곽에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는 정책을 세웠으나 언론과 시민들의 '그라츠 구도심 보존운동'으로 헤렌거리에는 자동차 진출입이 전면 금지되었다.

(그림2-45) 하렌가세 거리

도시의 랜드마크가 된 인공 섬 '무어인셀(Murinsel)'은 무어강에 놓인 길이 46.6m의 보행교이다. 그라츠 출신 미술전문 기획자인 로버트 푼켄호퍼(Punkenhofer)와 뉴욕 출신 건축가 비토 아콘치(Vito Acconci)의 예술적 상상력은 이 다리를 통해 강 양편의 충돌을 '화합'으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강물의 소용돌이를 형상화한 듯한 무어인셀은 무어강의 구시가와 신시가를 다리로 잇고 있으며, 강수량에 따라 배처럼 뜨고 가라앉도록 설계되었다.

(그림2-46) 무어인셀(Murinsel)

(그림2-47) 무어인셀(Murinsel) 내부

그라츠는 문화를 통한 도시 개조와 계층 간의 사회적 통합을 위해 무어 강을 적극이용하고, 강 양편의 차이를 없애기 위해 노력했고 우선 빈곤층 밀집 지역인 무어 강서쪽지역이 예술로 도시를 재개발하기 위한 '아트존'으로 설정했다. 그 중심에는 2004년에 건설된 쿤스트하우스가 있다.

쿤스트하우스는 영국의 건축가인 피터 쿡(Peter Cook)과 콜린 포니어(Fournier)가 설계하였으며 그라츠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만들기 위해 쿤스트하우스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2003년 쿤스트하우스가 완공된 후 색다른 재질과 디자인, 겉으로는 현대의 첨단기술만을 나타내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바로 앞에 놓인 유리벽에 그대로 투영된 구시가지의 모습으로 그라츠의 역사와 유산을 함께 담아내고 있으며, 천장에 나 있는 촉수는 과거의 랜드마크였던 슐로스베

르크의 시계탑을 향하고 있다. 또한 23개의 안테나를 통해 그라츠의 과거와 현재가 만나고 있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방치돼 있던 무르강 서쪽 공터에 지어진 전시 · 공연장 쿤스트하우스는 그라츠시가 이 문제에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 포스트모던한 건물양식 때문에 초기에는 전통을 파괴한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그라츠 시민들은 쿤스트하우스를 '친근한 외계인'이라 부를 정도로 이 건물은 도시의 명소가 되고 있다.

(그림2-48) 쿤스트하우스 외부

(그림2-49) 쿤스트하우스 내부

그라츠 시의 도시정책은 "도시의 동쪽은 동쪽대로, 서쪽은 서쪽대로 전통과 현대라는 각자의 정체성을 가꿔가도록" 계획을 추진 중이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시민들의 갈등과 불균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 건축물

- 고딕, 르네상스, 바로크, 유겐트 양식 등 중세부터 현대까지 다양한 건축양식이 공존한다.
- 르네상스 양식의 엄격한 형식미가 돋보이는 건축물, 바로크 양식의 지붕과 외벽의 화려한 프레스코 벽화가 잘 어울리는 상가 건물이 다양한 도시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다.
- 그라츠시의 구도심 보존 정책은 강력하게 추진된다.
- 건물 증개축 때 주위의 역사적 건물보다 층고를 높이 올리는 것을 금지하고, 증개축을 위해서는 슈타이어마르크주, 그라츠시 등 4개 기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 건물의 창문설치도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다.
- 구도심 개발정책의 핵심이 도시의 '퀄리티' 유지에 있으며, 오래된 건물들 사이의 조화를 깨지 않는 것이 그라츠 도시의 퀄리티이다.

● 바로크 건축물 1층 상가로 개조

● 바로크 건물 개조 활용

● 구도심의 건축물 높이 규제

● 건축양식의 다양성

(그림2-50) 그라츠 건축물

(2) 공공공간

● 거리

– 그라츠 CIS(Creative Industries Styria)는 경제관광개발부와 그라츠 시 관리국과 협력해 야곱미니(Jakomini) 구역에 도시개발 프로그램 "야곱미니피어텔(Jakominiviertel)"을 착수하였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창조적 분야가 이 구역에 자리 잡도록 장려하고 이 거리의 매력을 높이기위한 활동을 촉진시킨다.

– 건축가 산드라 얀서(Sandra Janser)와 엘리자베스 콜러(Elisabeth Koller)가 추진한 프로젝트 "Ready. Steady. Go!"는 야곱미니 구역에 비주얼 프레임을 설치하였다. 이 비주얼프레임의 목적은 야곱미니(Jakoministraße)와 Klosterw iesgasse 거리를 시각적이고 긍정적인 정체성을 가진 디자인구역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 야곱미니 구역 입구는 북쪽과 남쪽 거리의 끝에서 분명히 알아볼 수 있고 이들 거리 자체가 개조되어 방문객들이 흥미를 갖게 만드는 신선하고 매력적인 모습으로 탈바꿈 시킨다. "Ready.Steady Go!" 프로젝트에서 제시한 육상 트랙을 선보였다.

– 이러한 광장의 변화된 모습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켜, 발길을 멈추고 새롭게 조성된 환경에 매료되며, 이 블록 주위에 거리와 인도를 따라 총 750m, 또는 4,600㎡를 붉은색으로 칠했고, 회색 선으로 트랙을 구분하였다.

– 이 프로젝트는 유네스코 디자인 도시로서 그라츠를 활력 있게 표현하고 있다.

● 야곱미니 비쥬얼 프로그램에 의해 조성된 거리

(그림2–51) 공공공간 – 거리

● 광장

– 주차장으로 쓰이던 카르메리터 광장에 조경수와 벤치, 분수를 설치해 시민휴식공간으로 바꾸었으며, 주차장은 지하로 옮겼다.

– 도로와 보행로가 잘 정비되어 소음과 혼잡스러움이 없고, 통경축이 확보되어 있다.

● 주차장을 가로수와 벤치설치로 휴식공간으로 탈바꿈

● 자전거 거치대 설치

(그림2–52) 공공공간 – 광장

– 시청사 앞 광장은 노점상들이 들어서 광장의 표정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었다. 광장 주변으로는 전차들이 다니며, 전차들은 그라츠의 풍경을 낭만적으로 만드는 요소로 작용한다.

– 광장은 그라츠 시민들의 삶의 중심지 역할을 한다.

● 시청1층은 상가로 이용

● 광장주변 전차노선

(그림2–53) 공공공간 – 광장

(3) 도시시설물

● 스트리트퍼니처 – 벤치

– 그라츠는 최근 유네스코 창조도시네트워크(Creative City Network)에 유네스코 지정 디자인 도시로 지명되었다. 기존에 느낄 수 있었던 이 도시에 디자인과 창조경제를 향한 강한

의지는 더욱더 부각될 것이고, 여기에는 공공공간 속에서 디자인의 대상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 수반되고 있다.

– 디자이너 토마스 페레즈(Thomas Perz)와 페트러스 가틀러(Petrus Gartler)가 디자인한 Getier라 불리는 동물 모양의 벤치들은 마리아힐퍼플라츠(Mariahilferplatz)의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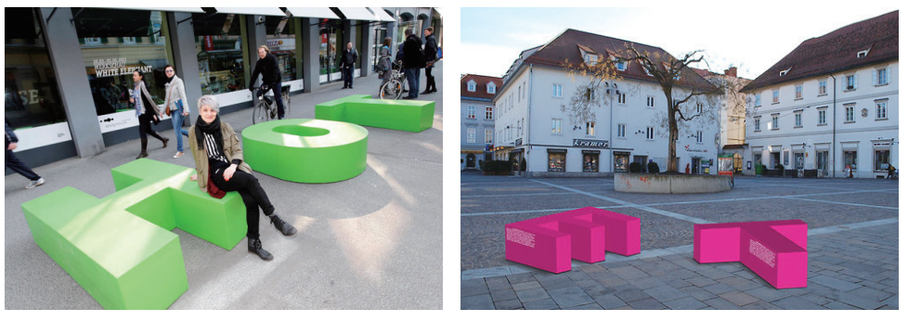
● 동물형태벤치

(그림2–54) 공공시설물 – 벤치

– "디자인 봉 그라츠(Design von GrA–Z)"프로젝트의 글자 모양 의자도 설치되었다.

– 이 거대한 글자는 메인 브릿지, 무어(Mur) 강의 왼편 강가의 환경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 17개 글자는 한 문장을 이루어, 5개 장소를 찾아다니며 관찰해 보면 그 문장을 알아볼 수 있다. 이 글자 모양의 의자는 아이들 놀이터로, 만남의 장소로 또는 태양 아래 편하게 쉴 수 있는 곳으로 다양하게 이용될 수 있다.

● 문자형태 벤치



(그림2–55) 공공시설물 – 벤치

– 전차정류장, 버스쉘터 : 심플하면서 기능적인 형태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 투명소재 사용과 기능성 중심 전차정류장

● 소재에 그린색 적용으로 주변과 조화

(그림2-56) 공공시설물 – 버스쉘터

– 자전거 거치대 : 링형태로 광장에 설치되어 사용이 편리하다.

– 교량 : 무어강 무린젤이 도시랜드마크적 시설물로 지역화합의 역할 수행하며 볼거리를 제공한다.

● 자전거 거치대 형태

● 무어강 교량의 형태와 기능의 차별성

(그림2-57) 공공시설물 – 자전거거치대

(4) 색채

- 주황색 지붕색상이 전체적으로 통일감을 주고 있다.
- 건물 입면의 색채는 GY, YR 계열의 중 · 저채도를 띠며, 도시이미지를 차분하게 만들어 준다.
- 건물 전면 상가의 파사드 부분은 강조색을 사용하여 차별화하고 있다.
- 바로크양식 건축물에서 나타나는 프레스코 문양의 화려함이 도시의 다양한 색상을 보여 준다.

● 붉은색 건물지붕과 입면색채 조화

● 프레스코 양식의 건축형태

● 중 · 저채도의 건물색채

● 옛건물과 색채조화

(그림2-58) 건축물-색채

(5) 옥외광고물

- 문자형태의 옥외광고물로서 건물외벽과 조화를 이룬다.
- 최소한의 면적을 차지하고 간판을 부착하여 건물을 가리지 않는다.

● 건물과 조화를 이룬 옥외광고물의 형태 및 건물부착 면적 최소화

● 바를 설치한 후 문자형태 부착

● 심플한 형태의 돌출간판

● 건물의 입면형태와 조화를 이루는 돌출간판

● 현대적인 건축스타일과 조화

(그림2-59) 옥외광고물

1. 가나자와

1) 가나자와 현황

- 가나자와시(金澤市)는 일본열도 서부 중간지점에 해당하는 호쿠리쿠 지방에 자리잡고 있는 이시카와현의 현청 소재지로 면적 467.77㎢, 인구 457,234명의 호쿠리쿠 지방 최대 규모의 도시다.
  – 시의 남북으로 각각 하쿠산 국립공원과 노토반도 국립공원이 자리 잡고 있어 호쿠리쿠 지역 관광의 중심도시로서 역할을 수행. 특히 가나자와성이 위치하고 있는 성지 부근은 각종 관청, 금융기관, 상가가 밀집한 도심지이다.

- 가나자와시가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한 것은 1546년 불교종파인 잇코오슈 문도가 현재 가나자와 성지가 위치하는 곳에 오야마보오라는 사원을 건립하면서 부터이다. 가나자와에는 지금도 노카쿠[1]가 숨쉬고 있는데, 이시카와 현립 노카쿠도에는 국공립 노가쿠도로는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유서 깊은 노무대가 있다. 이곳에서 중견 노가쿠사의 양성과 예능강좌를 여는 한편 노와 교겐의 정례발표회, 노를 즐기는 밤 등을 개최하여 노가쿠의 보급에 힘쓰고 있다. 또한 전국 제일을 자랑하는 게이샤문화는 현재까지도 동(東;히가시)·서(西;니시)·주계정(主計町) 등 3곳의 차옥(茶屋;차야)에 옛 모습 그대로 존속하고 있으며, 약 50만 명의 게이샤들이 차옥에서 현업으로 활동하고 있다.

- 노나 차노유[2]등의 전통예능이 번성하면서 이에 사용되는 물건들, 즉 비단직물과 염색, 도자기, 과자 등의 관련 산업이 발달하게 되었다. 가나자와에는 일본 민속의상 기모노에 꽃과 새 등의 문양을 염색하는 가가유젠, 가가유젠의 장식 등에 쓰여서 발달한 가가자수, 흔히 샤미센이라 통칭되는 일본전통악기 산겐, 금을 종이처럼 얇게 늘린 것으로, 나무나 금속 등에 붙여 금의 호화로움을 곁들이는 공예품인 가나자와 금박 등의 전통공예산업이 현재까지 보존·계승되고 있다.

- 2001년 한 해에만 7백여 만 명이 가나자와를 방문하였는데, 인근의 빼어난 자연경관으로 인한 연계관광이 가능하고, 에도시대부터 다양한 전통문화가 계승되어 오고 있기 때문이다.

1) 일본의 고전 예술 양식의 하나로 피리와 북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추는 가면 악극.
2) 손님을 초대하여 차를 대접하는 것

도시 및 가로구조와 문화재 등을 옛 모습 그대로 지켜 내려와 인위적이지 않은 도시문화가 지속적으로 보존될 수 있었다는 점이 크게 부각되었다. 도심 중심에 위치한 켄로쿠엔은 일본 3대 정원의 하나로 손꼽히는 정원으로 일본의 특별명승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가나자와성과 함께 가나자와시의 대표적인 관광매력물이다.

2) 가나자와시의 전통환경 보존제도

- 1968년 '가나자와시전통환경보존조례(이하 전통환경보존조례)'가 제정되면서, 가나자와시의 역사경관과 마을거리를 보존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시행된 최초의 경관보존조례로, 도시개발에 따른 도시의 전통환경 파괴를 방지하고 도시와 조화로운 새로운 전통환경을 형성하여 전승하도록 제정되었다. 가나자와시는 이 조례에 의거하여 전통환경보존구역을 지정하고, 구역 내의 건축・토지형질변경・목죽(木竹)의 벌채 등에 대한 신고, 조언, 지도, 권고 등을 실시하였다.

- 이후 1975년 중앙정부에 의해 전통적 건조물군보존기구(이하 전건지구)제도가 성립되어, 가나자와의 지정후보지로는 동차옥가가 물망에 올랐다. 지정 의욕을 보였던 당시 가나자와시장이 전건지구제도를 적용하기 위해 1977년 '가나자와시 전통적건조물군 보존지구보존조례(이하 가나자와시전건지구조례)'를 제정하였다.

  전건지구 내에서는 ① 건축물 등의 신축, 증축, 개축, 이전 또는 제거, ② 건축물 등의 수선, 모양교체 또는 색채 변경으로 외관 변경, ③ 택지의 조성 및 기타 토지의 형질 변경, ④ 목죽의 벌채, ⑤ 토석류의 채취, ⑥ 수면의 매립 등의 현상변경행위에 대해 시장 및 교육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나자와시의 전건지구 지정은 이후 수많은 논란을 거쳤다.

  결국 2001년 동차옥가가 최초로 지정되고, 같은 해 중앙정부에 의해 중요전통적 건조물군 보존지구로 지정되었으며, 이후 2003년 주계정차옥가가 추가로 지정되었다. 1989년 '가나자와시전통환경보존조례'는 '가나자와 전통환경의 보존 및 아름다운 경관의 형성에 관한 조례(약칭: 경관조례)로 변경되었다.

- 종래의 전통환경보존조례에서는 전통환경보존구역만을 지정할 수 있었으나, 경관조례에서는 '전통환경보존구역'뿐만 아니라, '근대적 도시경관창출구역'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3] 지정

3) 전통환경이란 수목, 하천, 대기와 같은 자연경관을 포함하여 역사적 건조물, 유적 등이 일체가 되어 형성된 시민환경을 일컫으며, 이를 보존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구역을 전통환경보존구역이라고 한다. 근대적도시경관이란 전통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근대적 도시기능과 일체를 형성하는 시민환경을 일컬으며, 이를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구역을 근대적도시경관창출구역이라고 한다.

구역에 대해서는 '경관형성기준'을 책정하고 시민에 의한 '경관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시민참가를 주요한 내용으로 삼는 도시경관만들기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도시경관 형성을 위해,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 및 목죽을 보존대상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보존대상물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변경, 목죽의 벌채, 소유권 이전 시 이를 시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 2004년 현재 가나자와시에 전통환경보존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36개 구역, 1,887ha로 매우 광범위하며, 근대적도시경관창출구역은 13개 구역, 154.4ha에 이르고 있다.
  - 한편, 시지정보존건조물은 현재 29개가 지정되어 있음. 또한 가나자와시는 1994년 '가나자와시전통마을거리보존조례(이하 전통마을거리보존조례)'를 제정하여 역사적인 마을거리를 귀중한 유산으로 보존하고 있다. 2004년 현재 총 35.54ha, 10개의 보존구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총 43개의 전통마을거리 보존건조물이 등록되어 있다.

(표3-1) 가나자와시 전통환경보존 관련제도

명칭	내용	비고
전통적 건조물군 보존지구 보존제도	– 보존지구에 대한 보존계획수립 – 보존지구 보존사업에 대한 경비보조	– 1977년 제정 – 동차옥가(2001년)와 주계정차옥가(2003년) 2개소 지정
경관제도	– 전통적환경보존구역 및 근대적도시경관창출구역 지정 – 지정구역의 경관형성기준 책정 – 도시경관형성을 위한 보존대상물 지정 – 조망경관의 보존	– 1989년 전통환경보존조례를 개정, '가나자와시경관조례'제정 – 전통환경보존구역(36구역/1,887ha) – 근대적도시경관구역(13구역/154.4ha) – 29개 보존건조물
전통마을 거리보존 조례	– 전통마을거리보존구역 및 보존건축물 지정 – 각 구역 내 보존기준 설정 – 보존사업 경비보조	– 1994년 제정 – 총 35.54ha, 10개 구역 지정 – 43개 보존건조물 등록

출처: 이소영, 2005, p.64.

- 전통적 건조물 집락군에 대한 면적인 지구/구역제도 뿐만 아니라, 가나자와시지정문화재 및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해 지정되는 유형문화재, 기념물 등의 점적인 문화재에 대한 보존제도도 있다. 현재 가나자와의 유형문화재로서 건조물 부문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가 지정 10건, 이시카와현 지정 18건, 시 지정 6건으로 총 34개의 건조물이 있다.

(표3-2) 가나자와시 문화재 현황

지정별			국가지정	현지정	시지정	합계
유형문화재	건조물		10	18	6	34
	회화		5	31	22	58
	조각		1		4	5
	공예품		12	26	7	45
	서적		11	13	4	28
	고고자료		2	4	2	8
	고문서			8	2	10
	역사자료			5	4	9
무형문화재	공예기술		2	2		4
	예능				2	2
민속문화재	유형민속문화재		5	1	2	8
	무형민속문화재			1	8	9
기 념 물	사적		1	3	4	8
	명승		2	4	1	7
	천연기념물	식물	2	3	3	8
		지질광물	1			1
전통적건조물군보존지구			1		1	2
합 계			55	119	72	246

출처: 이소영, 2005, p.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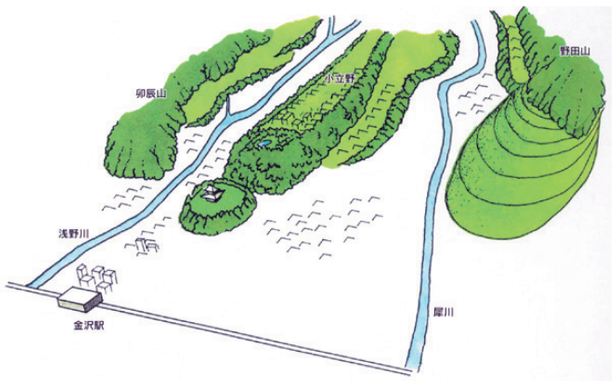
3) 가나자와시 경관정책

- 가나자와시의 경관정비는 단순히 관광객의 증가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주민의 생활향상, 환경미화, 문화예술, 기회창출 등 정주환경으로서 쾌적한 환경조성의 일환으로 시행되었다.

- 가나자와는 제2차 세계대전 중 공습을 받지 않아 전통도시로서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인구의 유출이 매우 적고, 공간구조의 원형이 거의 그대로 남아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장점을 지키기 위해 일본 최초로 "전통환경보존조례"를 제정하였고, 지역 특성을 살리고 개성있는 역사문화경관의 보호와 유지를 해나가고 있다. 또한, 활성화된 전통산업을 기반으로 관광산업과 연계된 지역경제를 구축하고 있다.

- 경관정책의 기본방향은 전통건축물과 현대적 건물과의 조화를 이루는 개발과 보존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옛마을 풍경을 보존하면서 동시에 신도시 개발을 병행하는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도시를 추구하고 있다.

- 가나자와시의 도시경관관리의 특징은 크게 2가지로 집약할 수 있다.
  – 첫째, 과거의 흔적을 보존하려는 지속적인 노력과 실천적인 정책의 추진과
  – 둘째, 시민과 사업자에 대한 이해와 설득을 위한 합리적 프로세스를 진행이다.



(그림3–1) 가나자와 경관 구조

- 역사문화경관 관련 조례 제정 현황.
  – 1968년 : 전통환경보존조례, 1974년 : 문화재보호조례, 1977년 : 전통적 건조물군 보존지구 보존조례, 1989년 : 전통환경보존 및 아름다운경관 형성에 관한 조례, 1994년 : 코마치나미 보존조례, 1997년 : 사면녹지보존조례, 2002년 : 조망경관보존조례, 사찰풍경보존조례, 2005년 : 야간경관보존조례, 가로경관보존조례

(1) 옥외광고물 조례

- 옥외광고물이 도시경관을 아름답게 하는데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요소이기는 하지만, 경관을 가꾸고 만드는 것은 결국 지역주민과 지역공무원, 지역기업인, 지역상업인 등을 모두 포함하는 '사람'이다.

- 따라서,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람'이 함께 참여하여 계획하고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이것은 계획 · 설계 · 시공이라는 하나의 흐름과, 이 흐름이 합법적 절차를 거쳐 집행되도록 하는 행정적 흐름이 필요함. 여기에는 지역주민들이 이러한 두가지 흐름의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반영하는 '문화적'인 흐름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 세 가지 흐름이 경관조례와 같은 하나의 제도적 체제로 명문화 된다면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더욱 확보할 수 있다.

- 옥외광고물 관련법규 제정목적 – 아름다운 경관 유지
  – 매주 1회 광고물 심의회를 개최하며,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은 없으나, 심의회에서 개선을 유도 한다.

- 녹색지역의 경관에서는 건축물의 색도 동일하게 유도하고,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색채를 가나자와 지역에 맞게 적용하도록 하며, 강제성은 없으나 주민의 90% 정도가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 야간경관지역에서 상업지역은 밝게, 그 외 지역은 어둡게 조절한다.

(2) 마을만들기(마찌즈쿠리) 협정

- 가나자와시에서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 경관조례를 만들었고, 옥외광고물조례를 비롯하여 여러 조례를 만들어 운영해오고 있다. 그렇다면,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형성하기 위해서 경관조례를 비롯하여 다양한 조례를 제정 및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관을 비롯하여 아름다운 마을과 도시를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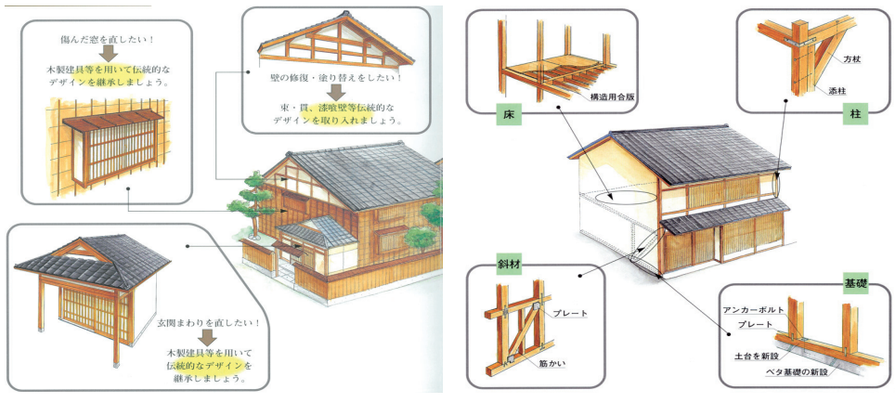
-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개발행위에 대한 규제 일변도의 법적 수단으로써 경관을 관리해왔지만, 일본은 가나자와시에서 행하는 것처럼 규제보다도 유도와 참여를 통하여 경관을 함께 보전하고 형성하고 관리해나가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대부분이다. 이는 지역의 경관은 지역주민들에 의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그 실효성을 가장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따라서 가나자와시에서는 주민과 함께 마을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가나자와시 마을만들기조례'로 일컬어지는 조례 두개를 2000년에 제정 '가나자와시에서 시민참여계획에 의한 마을만들기추진에 관한 조례'는 시가화구역내를 적용 범위로 하고 있고, '가나자와시 토지이용의 적정화에 관한 조례'는 시가화구역외를 적용 범위로 하고 있다.

- 마을만들기조례의 특징은, 주민들 스스로가 주민들이 사는 지역이 목표로 하는 장래상을 그리고, 마을만들기 규칙을 정하여 실현해나가는 체제를 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마을만들기 규칙을 주민들 스스로가 만들고, 주민들이 사는 지역의 개성을 부여하거나 만들어 가며, 난개발을 방지하면서 개성이 풍부한 마을을 형성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그 절차 등을 조례화 한 것이다.

(3) 건물개선 디자인 제시

-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건물디자인 개선방안 제공하고 홍보를 통해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그림3-2) 건축물 복원 매뉴얼

(4) 색채기준

- 원색(R, Y, YR), 형광색 등 금지색 지정, Y계열에서 채도가 4를 초과하여 사용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시 경고 및 벌금을 부과한다.
- 원색(R, Y, YR)이외의 색은 채도 2를 초과하지 못함. 상표의 원색 면적이 넓은 경우 건물의 20% 이상 면적을 초과하지 못한다.
- 전통건조물이나 자연소재에는 착색을 금지하고 있으며, 목조건조물이 많아 나무색(소재색)을 권장한다.
- 금지색으로는 노랑, 보라, 적색계통의 색은 자연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용을 금지한다.

(5) 경관서포트 제도

- 가나자와시는 시민과의 경관학습, 경관교육을 통해서 협력관계를 이뤄나가고 있다.
- 같은 지역에서 주민들이 사진을 촬영하여 개선효과 여부를 측정하는 평가방법을 모색한다.

(6) 가나자와 지역 활성화사업과 공공디자인 전개

〈세계도시 구상과 도심 르네상스 계획〉

- 메이지유신 이후, 근대화 과정에서 소외되었던 가나자와는 이 때문에 제2차 세계대전의 폭격이나 피해로부터 무사할 수 있었지만, 쇠락한 시골마을로 전락할 위기를 맞이하였다.

- 대도시로의 인구이동, 중심지의 상업화를 비롯한 급격한 지가 상승을 비롯한, 공공시설의 교외이전, 대형할인점의 진출, 자동차 증가에 의한 교통체증 및 환경오염 등은 지금까지 중심시가지가 길러온 다양한 도시기능의 저하를 초래하였다.

- 이러한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가나자와 시는 1995년 '가나자와 세계도시 구상'을 계획하고, '도심 르네상스 추진본부'를 설치하여 가나자와의 중심시가지 활성화를 최우선 중요시책으로 지정하였다.

- 이는 대규모 도심의 급속한 성장보다, 전통과 문화를 보존하고 활용하여 도시의 성장과 발전에 있어 중심시가지의 활력과 매력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다.

(7) 경관 및 가로환경 정비사업

〈전통 환경보존지구 정비사업〉

- 지역 특성을 살리고 개성 있는 역사문화경관의 보호와 유지를 위해 '전통환경보존조례'를 제정하였다. 이 조례에 근거하여 조망경관보존구역 내 고층건축물 제한 등 각종 건축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설계자가 직접 경관 진단서 및 경관 시뮬레이션을 작성하여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도록하고 있어 공간변경으로 야기되는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 가나자와시는 혜택 받은 자연과 지형을 배경으로 중심시가지의 약 절반 이상을 '전통 환경보존지역' 및 '근대적 도시경관 창출지역'으로 지정하고 개발과 보존이 조화된 아름다운 지역 만들기를 가로경관 측면에서 추진하고 이에 따른 정비를 진행하였다.

- 2006년 3월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간판정비 지구를 위한 기본방침을 마련하고 이후, 경관과 교통의 안전성을 중시하면서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가나자와만의 도로

표식 간판설치를 추진하였다. 또한 전통 환경을 보존하고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을 전통 환경 보존 지구로 정하고 근대적 도시경관 창출에 필요한 각 지역의 건축물 및 조형물의 규모, 위치, 색채, 의장 등에 관한 기준을 수립하여 시의 개성 풍부한 아름다운 경관 형성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 '고마치나미'의'고'는' 역사적 경관과 정서를 지닌 가로'를 뜻하는'古'와' 작다'는 의미의 '小'를 모두 포함하는 말을 뜻한다. '고마치나미'(小町竝み)라는 이름의 사업을 통해 역사적으로 가치를 지니는 사무라이 가옥, 옛 가옥, 사원 등 건축물이나 유사 양식을 계승한 건축물이 모여 있는 골목은 물론, 생활과 경제활동의 장소로서 가나자와만의 분위기를 자아내는 골목을 선정해 경관을 정비하였다.

- '고마치나미 사업은 ①보존이 필요한 가로를 '고마치나미 보전구역'으로 지정하여, ②지역 특성에 맞는 '보전 기준'을 정하고, ③보전구역에서는 신축이나 개축이 필요할 경우 사전 협의를 통해, ④ 시가 개축과 수리 비용의 최대 70%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구역 내의 역사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건물은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 '고마치나미 보전건조물'로 등록하고, 시와 소유주가 보전계약을 체결하고, 구역 지정과 보전 기준은 주민과 전문가(대부분 가나자와 내부 전문가)로 구성된 '고마치나미 보전위원회'를 중심으로 합의를 이끌어냈다.

- '골목에 문화의 손길이 닿아 골목이 다시 활기를 띠고, 진정한 의미의 공간으로 자리 잡은 고마치나미 사업의 가장 대표적인 곳이 히가시차야 도오리(東茶屋通り)다. 히가시차야 도오리는 이제 가나자와의 대표적인 관광지이자 이미지 공간으로서, 이 거리는 가나자와의 이미지에 어울리는 공간으로, 일본 전통차, 가가유젠(加賀友禪, 일본 전통의상 염색법), 금박(金箔), 구타니 자기(九谷燒) 등 지역 특산물을 파는 거리로 재정비되었다.

- '이 과정에서 건축 · 조경 · 마케팅 전문가가 투입되어 건축물의 높이, 지붕의 형태와 재질, 외벽의 색채와 재질, 외벽의 위치, 식재(植栽)와 문이나 울타리 등의 조성, 외부로 드러나는 설비기기 지침, 옥외 광고물과 차양 등의 설치 지침을 마련하하였다. 또한, 업종 선정과 인테리어, 마케팅 관련 노하우를 전달하고, 간판 · 안내판 · 안내지도 등의 공공 사인 디자인 등을 정비해 전체 경관의 조화를 추구하고, '걸으면서 문화를 느끼는' 골목을 만들어 갔다.

(그림3-3) 히가시차야 도오리(東茶屋通り)지구

(8) 지역 보행 공간 정비사업

- 지역 내 벤치나 화장실, 식재 등, 시민과 관광객들의 걷기 쉬운 보행환경 정비 추진사업으로 가나자와 내에서 보행자 우선, 공용교통 우선 정책을 진행하여 가나자와 성을 중심으로 지역 특유의 역사유산이나 상점가를 즐기며, 둘러볼 수 있도록 보행환경 정비를 추진하였다. 이러한 정비에도 모두 지역의 특성과 이미지를 최대한 반영하는 디자인으로 주변 지역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였다. 가나자와 무사 가옥 주변의 공중전화 박스와 공중화장실은 옛 무사가옥의 구조와 재료를 적용하여 주변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림3-4) 공간, 시설물(인도, 볼라드)

(9) 아트퍼니처 설치

- 가나자와 시의 아트퍼니처 설치는 문화예술이 살아있는 가나자와의 특성을 살리려는 시의 정책으로 가나자와 역에서 21세기미술관을 잇는 가로축을 중심으로 예술성이 넘치는 조각 작품 및 공예작품을 설치하였다. 이를 위해 가나자와 시에서는 세계각국에서 공모한 뛰어난 조각 작품을 설치하고, 기업의 쇼 윈도우에 학생들의 작품을 전시함으로써 가로경관의 매력을 높여 지역 전체에 즐거움과 활력을 부여하였다.

(10) 가나자와 시냇물 정비사업

- 가나자와시 대로상의 정비에 따라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하는 도심 축 보행공간의 정비는 사람들에게 편안함과 친근함을 느낄 수 있는데 주안점을 두고 물, 녹음 등 자연의 요소를 최대한 활용하여 괘적한 보행공간을 창출하였다. 특히 예부터 내려오는 가나자와시의 전통 수로를 적극 끌어들여 시냇물이 흐르는 도심의 괘적함과 여유로움을 더욱 높였다.

(그림3–5) 가나자와 수로

(11) 자원을 낭비하지 않는 조밀한 구성

- 조밀한 구성은 각각의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고, 물, 바람, 녹음 등 풍부한 자연과 이들 요소가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이어지고 유지되어 이러한 지역 환경 속에서 질높고 풍부한 거주공간과 괘적함을 느낄 수 있다.

- 스트리트퍼니처에 지역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소재나 형태를 적용하는 것은 지역 경관을 구성하는 하나의 큰 축이 될 수 있다. 가나자와시는 전통 환경 보존 지역을 설정하고, 그 지역의 가로 시설물에는 가나자와 전통 건축물의 구조 및 소재, 패턴 등을 적용하여 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고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이루게 하였다.

(그림3–6) 가나자와 가로시설물

(12) 시사점

- 지역이미지를 구축하는데 있어 지역의 다양한 관계 주체와의 합의 형성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
- 지역의 요구를 충분히 이해하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함께 세우면서 지역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적극적으로 합의 형성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 역사와 문화를 기반으로 한 매력 있고, 활기 있는 '걷는 마을' 만들기와 상점가의 특성을 살린 상업환경을 형성하는 창조도시를 조성하였다.
- 공간의 기능성 · 시각성 · 기호성 · 무대성 이외에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문화 생활을 반영하고 우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인프라 정비, 환경미화 차원에서 아름다운 골목을 수동적으로 향유하기보다는 많은 주민과 방문객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주고, 그것이 생활향상, 문화예술 기회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5) 가나자와시의 역사문화경관 정책의 특성

(1) 창의적 제도 개발과 실천적 적용

- 가나자와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조례들은 모두 고유한 자원(지형지세, 수환경, 가로, 사찰군, 조망 등)의 보호와 관리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 제정된 각각의 개별 조례들은 가나자와의 도시구조와 형태, 그리고 자연경관의 원형을 보존하고 새로운 경관자원을 발굴하게 되는 근거가 되었고, 도시 곳곳에 잔재하고 있는 역사문화경관들을 지켜낼 수 있는 완충장치의 기능도 부여하고 있다. 또한 개별조례의 제정으로 도시 내 흩어져 있는 역사자원들의 통합관리가 이루어지게 되어, 도시경관관리의 체계화에 기틀을 마련하였다.

- 결과적으로 이러한 창의적 개별조례들은 가나자와만의 독특한 정체성을 지키고, 지속하게 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 도시 내의 역사문화경관을 관리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유형의 '갈등'이 따르기 마련. 공공과 주민간의 보상 문제로 인한 갈등, 토지개발과 관련된 토지소유자들과 공공의 갈등, 관광객들과 주민들과의 갈등, 개발과 보존의 이념적 차이에서 발생하는 갈등 등이 있다. 가나자와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갈등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경관조례의 각종 내용들을 실천화 · 구체화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 예를 들어, 전통경관조례와 도시계획법, 건축법, 기타 관련법들이 연동할 수 있는 시스템[4]의 구축, 개별조례에 의해 마련된 실천적 가이드라인과 관련 경관계획들간의 통합적 운영관리 시스템 등을 들 수 있다.

– 물론 가이드라인은 단순히 '규제, 제한'에 국한 된 것이 아니라, 경관형성에 합리적인 계획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보조금 지급) 제공을 통한 '유도, 관리' 기법 및 경관협정과 합리적인 '보상, 지원' 제도의 내용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 이는 시가 단독으로 도시의 경관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경관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경관관리수립에 대한 지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경관교육 및 공청회 등의 교육시스템을 통하여 시민을 위한 경관계획수립을 마련하고 있다.

– 이러한 노력의 결과는 공공과 시민 사이에 발생했던 갈등들을 점차 사라지게 만들었으며, 오히려 도시 관리에 대한 공공과 시민들과의 깊은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 그러나 갈등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며, 특히 재산권과 관련된 갈등은 항상 잔존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의 주원인은 건조물 등의 자유로운 현상변경의 통제와 거주지의 관광지화를 통한 지역민의 사생활의 침해가 가장 대표적이다.

– 지난 히가시차야가이가 2001년 처음으로 중앙정부에 의해 중요전건지구로 지정될 당시,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와 재산가치 하락, 그리고 자유로운 건축행위 통제 등을 이유로 크게 반발을 하였다.

– 이 당시 시는 '대책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10여회에 걸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보존의식 고취를 위한 중요전건지구 학습회의 운영, 주민대회 및 전건지구 미니설명회 개최, 선진적인 중요전건지구의 시찰 등을 통해 주민을 설득하였다.(이소영, 2005).

● 이후 시민들의 반발과 갈등은 긍정적으로 변하였지만, 사람이 생활하는 역사문화경관에는 항상 이러한 갈등들이 따르기 마련이다. 이에 가나자와에서는 2001년 히가시차야가이의 중요전건지구의 지정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점을 보완하고, 계획수립 전, 후에 나타날 수 있는 갈등양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전협의제[5]'를 제도화하였다.

– 사전협의제 또한 공공의 이익양산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파행적인 운영이 될 수 있으나 가나자와는 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사전협의제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관련 담당 공무원들의 역사문화경관에 대한 책임의식과 자긍심을 갖

4) 관련제도들과의 연동과 관련된 근거조항들을 전통경관조례 제24조와 25조에 두고 있다.
5) 가나자와의 사전협의는 일반적인 심의제도가 아닌, 공공과 지역민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이루어 내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출 수 있는 체계적인 행정시스템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2) 도시의 통합적 네트워크화

- 자치조례 제정을 통해 확보되어진 가나자와의 역사문화경관 속에는 크게 세가지 차원의 네트워크가 내재되어 있다.

- 첫째는 '환경'차원의 네트워크
  - 가나자와의 역사경관의 핵심자원인 가나자와성과 겐로쿠엔이 있는 도심부를 중심으로 남북 방향으로 비스듬하게 사이강과 아사노강이 흐르고 있으며, 하천 너머 동쪽과 남쪽 방향으로 다시 구릉이 시작되는 독특한 지형 구조를 가지고 있다.
  - 즉, 두 개의 하천을 따라 골 형상으로 시가지가 발달하여 있고, 이 사이를 산록에서 흘러내리는 소하천들이 실핏줄처럼 연결하고 있다. 이러한 산록과 소하천이 이루어 내는 환경적 특성을 각종 경관 조례들을 통해 보전하고, 또 이와 연계된 조망보전구역을 조례에 의해 지정 및 사면, 용수 등의 보전구역을 설정하여 도시원형경관의 보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즉, 고유한 환경적 특성을 통합 · 관리하여 도시 역사문화경관의 네트워크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 두 번째는 '이미지'차원의 네트워크
  - 가나자와의 경관계획에서는 기본이념으로 '가나자와 경관 문맥(文脈)의 연속성을 찾는 것'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다.
  - 이를 위해 정위(定位), 연속(連續), 중심과 주변녹화(中心, 周錄), 집적(集積), 대비(對比), 조망(眺望), 지형특성에 어울린 녹(錄) 등의 다양한 실천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金澤市都市景觀形成基本計劃, 1992).
  - 즉, 도시경관은 분리되고 독립된 것이 아니라 도시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전제하고 '도시구조와 관련된 자연과 역사의 조화'를 도시경관 형성의 원칙으로 삼고 있다.
  - 이를 위해 역사경관자원들을 면(面) 형상의 지구와 선(線) 형상의 가로 단위로 묶어 단일 경관에서 느끼지 못하는 다양한 복합경관에 대한 체험을 방문객들에게 제공되었다. 체험은 반드시 보행과 대중교통(버스)을 통해 가능하도록 해놓았다. 역사문화적인 도시이미지의 체험에 보행과 버스와 연계된 '대중적 이동'이라는 수단을 접목하여 치밀하게 네트워크를 이루어 놓았다.

- 마지막은 '이동'차원의 네트워크
  - 가나자와의 도시관리정책 중 가장 돋보이는 것 중 하나가 '교통(버스)시스템'임. 가나자와와 유사한 역사와 규모를 가진 도시들에게 채택한 전차나 지하철이 가나자와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도시관광 차원에서 경쟁 도시들인 하코다테, 삿포로, 나가사키, 오까야마, 히로시마 등이 보유한 전차시스템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나자와에서는 체계적인 버스시스템을 도입하였다.
  - 특히 가나자와역에서 가나자와성, 겐로쿠엔 등 주요 역사자원공간을 순환하는 '가나자와 성테마버스'는 지역민, 관광객들에게 가나자와의 역사공간을 편리하게 볼 수 있는 버스 시스템이다.
  - 또한 매주 토요일 야간에만 운행하는 '가나자와야간버스', 대형버스가 다닐 수 없는 길을 운행하는'플랫버스' 등 특수한 목적을 가진 테마버스들이 역사문화경관의 통합적 관리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 특히 플랫버스는 출입구 계단이 없고 바닥면이 낮은 저상형 소형버스로 1993년부터 운행. 총 3개 노선의 노선으로 운행되고 있으며, 전통적인 소형 상점들이 몰려 있는 골목길을 서행(시속 약 5㎞)하며 시가지를 순환하고 있다. 이 버스의 도입 취지는 일반교통에서 소외되어진 도시약자(특히 노인)들을 도심으로 수송하는 이동수단으로 시작하였으나, 최근 들어 진솔한 생활경관의 체험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점차 관광상품화 되면서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이처럼 플랫버스는 가나자와의 도심축과 주변부의 경관과 공간을 하나로 묶는 네트워크의 역할 담당한다.

(3) 장소마케팅을 통한 역사문화경관의 점진적 확대

- 가나자와가 보유한 역사문화경관의 핵심은 도심부에 나란히 입지한 가나자와성과 겐로쿠엔이다. 이 공간을 국가보호대상인 히가시차야가이와 카즈에마치차야가이가 주변부에서 지원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이보다 격이 떨어지는 지구들은 시 차원에서 역사적 풍경과 정감을 느낄 수 있는 별도 지구로 지정 · 관리. 이 지구들은 국가지정 보존건축물과 지구들을 보호하는 완충기능도 부가적으로 가지고 있다.

- 최근 가나자와는 이러한 지구와 단위시설들을 새로이 발굴하고 창조하는 일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대표적인 곳으로는 가나자와의 역사배경이 되는 차옥문화와 무사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니시차야가이(西茶屋街)와 부케야시키(武家屋敷)이다. 또한 시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생활시설들도 역사문화 경관의 범역에 포함 · 확대시켜나가고 있다. 예를 들어

도시역사와 문화를 전달할 수 있는 교통시설이나 다리, 재래시장, 문화시설, 용수망 등이 이에 해당된다.

- 가장 특이한 것은 용수보전조례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용수망을 장소마케팅의 대상으로 활용하는 점. 용수망의 보전은 '역사 · 문화적 가로경관과 용수경관의 조화', '복개된 소하천의 복원', '생태적 환경 조성', '소방 등 용수활용' 등을 목적으로 한다(용수보전조례(金澤用水保全條例) 제6조 및 가나자와시 내부자료). 이 중 최우선이 '경관' 목적. 이를 위해 55개소의 용수망 중 18개소를 '보전 용수망'으로 지정하고, 지역경관과 아름답게 조화되는 22개소의 '용수조망점'을 선정하여 관광에 접목하였다.

- 또 최근에는 영화, 포스터 등 매스미디어를 통해 가나자와의 곳곳을 명소화하는 간접형 관광산업화의 전략을 점차 확대하고 있음. 이처럼 가나자와는 장소마케팅차원에서 새로운 도시자원들을 발굴하여 이를 통해 역사문화경관 관리의 범역을 점진적으로 확장시키고 있다.

(4) 역사문화경관과 지역전통산업의 복합

- 최근 일본에서는 가나자와를 '내발적 창조도시'라 부르며, 중소기업의 도시, 2 · 3차산업이 균형이 이루어진 도시, 전통산업과 첨단산업이 공존하는 도시, 독자적 도시경제순환체계를 보유한 도시 등으로 평가하고 있다(정원창譯, 2001). 이의 계기가 된 것은 예부터 전승되어 온 소규모 전통산업(섬유, 공예 등)의 보존과 육성 때문이었다. 이러한 시각에서 역사문화경관과 관련된 가나자와의 도시 산업적 구조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첫째, 고유한 '경관'을 활용한 적극적인 마케팅
  - 이는 1986년 아사노강 북동 측에 예정되었던 아파트건설에 대한 반대운동이 기폭제. 이 과정 속에서 1인당 1천엔씩 기금을 모으는 '도시경관 트러스터운동'이 시작되었고(이소영, 2005), 이는 시민의 커다란 호응을 얻어 개발계획을 저지하게 되었고, 전통문화와 거리모습을 지키겠다는 시민들의 열의가, 행정당국을 움직여 자본주의식 개발계획을 막아낼 수 있었다. 이 과정 속에서 이곳의 '경관'을 가나자와의 고유한 역사문화경관으로 인식하게 되는 의식전환과 함께 가나자와의 도시경관 보전운동이 이루어진다. 이후 전통경관조례에 '조망보전구역'개념을 도입하게 되었고(1989년), 시민운동이 시작된 이곳을 가나자와에서 가장 중요한 '조망경관보전구역'으로 지정을 함. 이를 계기로 조망, 용수망, 사면녹지, 역사적 장소(가로) 등의 자원을 제도화과정을 통해 역사문화경관으로 육성하여 관광산업과 연계시키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 둘째, 가나자와의 전통산업을 역사문화경관과 직접 연계를 통한 복합화
  - 옛 상점들의 지속적 운영을 위해 역사경관자원과 결합된 형태로 활성화 시켜나가고, 장인기술의 계승을 목적으로 한 교육기관들을 설립하여 섬유와 금박 등 각종 전통산업을 보존·육성하고 있으며, 최근에서 첨단디자인산업과 연계하여 가나자와를 국제적인 디자인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음. 이는 수차례에 걸친 디자인 박람회 및 포럼회 개최경위로 확인할 수 있다.
  - 또한 육성된 장인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수 십 개소의 전통상점을 보존하고 민속예능기술을 전승하고 있다. 자칫 무형적 자산에 그칠 수 있는 전통산업을 직접 피부에 와 닿게 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기술'과 '기능', 그리고 '공간'을 통합하는 관리를 시도하고 있다.

- 마지막 특성은 시민들의 삶 속에서 역사문화의 자생력을 키워 이를 지역산업과 연계시킨다는 점
  - 접근성이 양호한 도심의 이전적지(공장부지, 공공시설부지 등)들을 다양한 시민체험현장으로 재활용하여 일상생활과 분리되기 쉬운 역사문화를 '지속가능한 생활문화'로 발전시켜 가고 있다.
  - 가나자와시민예술촌의 조성과 21세기미술관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며, 현재 도심에 위치하고 있는 현청을 이전, 재활용하여 문화시설로 조성하는 계획을 진행 중이다.

- 이러한 세 가지 특성들은 현재까지 누적되어 가나자와의 지속가능한 전통산업의 근저를 이루며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으로 작동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오래전부터 시작된 장인적 생산의 부활과 재구축을 지향하고 있으며, 지역소비시장의 활성화와 함께 문화산업을 육성하여 가나자와만의 새로운 경제산업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2. 교토시

1) 교토시의 현황

- 교토는 일본 혼슈[本州] 중서부에 있는 교토부 부청소재지(府廳所在地)로서 긴키[近幾] 지방의 중심도시이다. 794~1868년까지 1,000년 이상 황궁(皇宮)이 있던 일본의 수도였으며, 불교문화와 직물업 · 요업 등의 전통산업을 선도하여 왔다. 현재에는 국제적인 문화 · 관광도시로서 면적은 828㎢, 인구 1,470,000명이다.

- 교토천도로부터 약 350년간은 후지와라씨족을 중심으로 한 중앙귀족이 실권을 잡았고, 상업과 공업이 흥성하였으며, 왕조문화가 형성되었다. 그후 14세기 귀족계급을 대신하여 실권권력으로 등장한 무사계급에 의하여 교토에서 무로마치 막부가 시작되고, 히가시야마 문화라고 일컫어지는 무사문화가 탄생하였다. 15세기 중엽 오오닌의 난을 계기로 시작된 전국시대를 거쳐 정권을 획득한 도요토미 히데요시(풍신수길)는 교토에 죠오카마치를 건설하였다. 죠오카마치가 자리잡은 헤이안쿄오로부터 남쪽방향으로 좀 떨어진 강가의 후시미였음. 후시미는 수운으로 타도시와 왕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내륙도시라는 교토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지역이다.

2) 교토시의 도시공간

- 교토시의 지형은 동, 서, 북의 세 방향이 산(히가시야마-東山, 니시야마-西山, 키타야마-北山)으로 둘러쌓인 분지형으로 교토의 동서로 자리잡은 가모강과 가츠라강은 도시구조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중요한 역사공간의 역할도 하고 있다.

- 헤이안쿄오가 건설된 이래, 교토은 바둑판 같은 골격을 유지하면서 발전해 왔다. 전통적 건축양식인 마치야(町家)는 건물의 전면폭이 좁고 길이가 깊은 건축물로서, 교토에서는 마치야에 의한 고밀도의 도시공간이 형성되었고, 좁은 길을 중심으로 하고 마주보는 마치야들에 의한 커뮤니티가 형성되었다.

- 교통시에서 펴낸 교토의 도시계획을 보면 교토의 시가지구조를 현존하는 건물의 건설시기에 다라 다음과 같이 네 개의 층으로 구분하고 시가지의 역사적 발전구조를 해석하고 있다.

– 제1층은 1911년 이전의 건물이 30% 이상 분포하는 지역임. 교토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지역으로서 흔히 낙중(洛中 : 락쿠츄우)이라고 불리우는데 전통적 건축양식인 마치야 양식의 집들이 많이 남아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고층빌딩 건설에 밀려 마치야가 점점 사라지고 있어, 그 보전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이다.

– 제2층은 1944년 이전의 건물이 50% 이상 분포하는 지역임. 메이지시대에 들어서면서 시가지가 형성되었고, 제1층과 유사한 역사경관이 형성되어 있다.

– 제3층은 1965년 이후의 건물이 50% 미만 분포하는 지역으로서 제2차 세계대전이후 도시화가 진전되면서 형성됨. 주로 철도를 따라 발달된 주택지들이다.

– 제4층은 1965년 이후의 건물이 50% 이상 분포하는 지역으로서 자동차의 보급이 늘어나면서 시가지가 확산된 지역이다. 넓은 면적을 차지하며, 계획적으로 건설된 두 개의 뉴타운이 위치하는 곳이다.

3) 교토시의 역사문화경관

- 교토시는 중앙정부에 의하여 역사경관 보전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기 이전인 1972년 '교토시 시가지경관조례'를 제정하였다. 이 조례 제정으로 미관지구 지정, 역사지구 보전, 옥외광고물 규제 등을 통한 교토의 독자적인 경관행정이 출발하게 되었다.

- 고쇼, 니죠죠, 가모강 주변, 가모강 동쪽 지구의 시가지경관 정비를 위해서는 시가지경관 조례에 의거해 주로 미관지구제도를 활용해 건물높이나 건물형태를 심사하고 있고, 마치나미라고 불리는 역사지구에 대해서는 지구지정 및 건축지도, 경비보조 등을 하였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산네자카와 기온신바시인데, 최근에는 후시미와 같이 지역의 풍토와 산업을 결부한 역사경관 보존의 필요성도 지적되고 있다.

- 그리고 근대의 역사경관에 대한 보존의 필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근세 교토의 중심지였던 산죠도오리의 근대건축물군에 대해서도 보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 한편, 시가지 주변의 산록이나 사가노의 전원지대와 같이 역사적 건조물, 정원, 유적이 주위의 자연환경과 일체가 되어 형성한 역사경관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주도로 보존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역사경관에 대해서는 1966년 제정된 '고도의 역사적 풍토보존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역사적으로 의의가 있는 경관지역 60㎢가 역사적 풍토보존구역으로 특히 중요한 지구 15㎢가 특별보존구역으로 지정되었다.

- 제2차 세계대전중에는 폭격을 받지 않아 전통적인 유적 · 유물이 피해를 입지 않아 교토에는 일본의 역사와 전통이 그대로 간직되고 있다. 또한, 문화적으로 다양한 양식의 건축물을 비롯하여 노[能 : 일본의 전통연극] · 한문학 · 서화 · 다도 · 꽃꽂이 · 통속소설 등이 성행하여 독특한 일본적인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 교토의 문화유산은 1994년 12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음. 교토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는데 적용된 기준은 건축이나 도시계획, 경관에 큰 영향을 미친 것과 어떤 양식의 건축물 혹은 경관에 대해 훌륭한 본이 된 것이었다. 역사적, 예술적 가치가 높고, 일본의 문화를 대표하는 교토의 문화재 중에서 주변의 풍치, 경관까지 고려할 때 특히 보존이 잘되어 있는 기요미즈데라(청수사), 료오안지(용안사), 니죠조 등 17개의 신사와 사찰이 세계문화유산 명단에 등록되어 있다.

4) 교토의 역사지구 보존사례

(1) 산네자카(産寧坂)

- 산네자카는 교통 동부의 히가시야마(동산)지역에 위치함.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기요미즈데라를 바라보도 오르다 보면 왼쪽으로 난 아래오 경사진 길이 산네자카이다. 산네자카는 에도시대부터 전해오는 마치야 형식의 상가가 자리잡고 교토의 특산물들을 판매해 왔다. 이곳이 관광객들을 통해서 알려지면서 1972년 시 조례에 의거한 특별 · 보전수경지구(特別保全修景地區)로 지정되었다. 현재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국가문화재인 중요전통적 건조물보존지구로 지정되어 있다.

- 이 지구의 보존에서 매우 주목할 만한 것은 역사적인 건축물을 원형 그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 외관의 의장과 양식을 계승하면서도 개축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채택되었다는 점이다. 이를 보존수경이라고 하며, 마치야의 보존에 응용되었다. 마치야의 문화재적 가치보다는 언젠가는 개축도어야 하는 목조건축물이라는 점과 사람들이 실제로 생활하고 있다는 점에 무게를 둔 결과 선택된 보존방법이다.

- 산네자카의 아래쪽으로는 타이쇼(대정)시대에 형성된 나넨자카가 있는데, 이곳 또한 보존지구 중 하나다. 이와 같이 20세기 들어서 형성된 비교적 역사가 오래지 않은 지루를 보존의 대상으로 삼은 결정은 그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것이었다. 일본에서도 최근에 들어서야 근대의 역

사문화환경의 역사성이 인정되어 문화재로 지정되기 시작한 것을 고려한다면 교토시의 역사지구 보전행정의 선구성이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2) 기온신바시(祈園新橋)

- 기온신바시지구는 화재로 모두 소실된 후 메이지시대에 재건되었는데, 건축물의 의장은 에도시대의 것을 잘 재현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독특한 건축양식의 차야(茶屋)가 늘어선 세련되고 통일감 있는 가로경관이 유명함. 차야란 손님에게 유흥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곳을 말한다. 기온신바시지구의 차야은 야사카신사라고 불리우는 기온신사의 서쪽 누문 문전에 기원을 두었다. 사찰이나 신사 앞에 형성되는 마을인 몬젠마치(門前町)에 예능이 결합되면서 차야로 이루어진 이 역사지구가 탄생하게 되었다.

- 이 지구의 전형적인 차야의 건축양식을 보면, 일층부문은 세련된 교토풍 격자가 설치되어 있고, 이층 수분은 다른 지역의 차야에 비해 높이가 높게 건축되어 있다. 지구 안을 통과하는 작은 하천인 시라카와와 하천의 바로 옆에 위치하는 차야가 어우러진 풍경은 기온신바시지구를 대표하는 풍경으로 알려져 있다.

- 기농신바시지구의 보전은 주민에 의해서 주도되었다. 이 지구에서 계혹 차야를 운영하면서 거주하고자 한다면, 고층건물로 개축하거나 지가가 상승하는 것이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주민이 인식했기 때문이다. 차야라는 전통적인 상업행위를 하는데는 이 지구의 역사성이 매우 중요한 전제조건이 될 뿐만 아니라 지가상승은 결국 과다한 상속세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 주민의 보전요청에 따라 이 지구는 1974년 교토시 조례에 의하여 특별보전수경지구로 지정되었고, 1976년에 중요전통적건조물군보존지구로 선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5) 교토시 경관정책

- 고도보존법에 의해 역사적 건조물과 자연환경이 일체를 이루는 고도의 역사적 풍토를 보존하는 풍토특별보전지구를 1930년에 지정하였다. 전통적 건조물군 보존지구는 시가지 경관조례에 의거 특별수경보전지구를 참고하여, 1975년에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하고, 제도화하였다.

  – 1930년 – 풍치지구의 지정,

– 1966년 – 고도보존법 제정,
– 1967년 – 고도보존법에 의한 역사적 풍토특별보존지구 지정(117ha에서 현재 2,861ha)
– 1972년 – 시가지 경관조례 제정 – 미관지구, 거대공작물 규제구역, 특별보전수경지구(기온 신바시지구, 안네이자카지구), 쇼와50년 문화재보호법 개정(전통적 조물군 보존지구 제도 창설)
– 1973년 – 시가지 대부분 고도지구(중심부 높이 45m 제한)
– 1995년 – 시가지 경관정비조례 제정
– 1996년 – 경관규제구역 확대, 옥외광고물 대책의 강화, 높이 규제 강화
– 2003년 – 직주공존지구의 3점세트 룰의 도입
(도심부의 고도지구 강화, 특별용도지구 지정, 미관지구 확대)

- 경관 중요 건조물의 지정 (단체정비 – 역사적 경관재생사업) 역사적인 건조물이나 교토다운 정취가 있는 경관을 보전재생하기 위해 경관 중요건조물을 적극적으로 지정하고, 경관상 중요 건축물의 외관수리시 지원하고 있다.

(1) 경관정책 기본 컨셉

- 교토시는 5개의 기본방침아래,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규제 · 유도방안을 검토하여 2007년 9월부터 새로운 경관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① 교토의 바람직한 경관형성 50년, 100년 후의 교토 장래를 내다본 역사도시, 교토의 경관 만들기 건물 등은 사유 재산이라도 경관은 공공재산 교토의 훌륭한 경관을 지키고, 미래의 세대에 계승하는 것이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책무라는 의식을 가지도록 하고 있다.

② 5대 기본방침
– 분지경을 기본으로 자연과 공생하는 경관형성
– 전통문화의 계승과 새로운 창조와 조화를 기본으로 한 경관형성
– 교토다움을 살린 개성 있는 다양한 공간으로 구성된 경관형성
– 도시의 활력을 만들어내는 경관형성
– 행정, 시민, 사업자 등의 파트너쉽에 의한 경관형성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새로운 경관정책 추진

(2) 교토시의 경관정책의 구성

● 경관정책은 5개의 요인과 지원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토시에서는 이 경관정책을 위하여 2007년에 도시계획과 시의 법률을 변경하였다.

– 법률 제정 – 조망경관 창생조례, 건물의 높이 제한을 초과하는 특례허가의 수속을 정한 조례

– 법률 개정 – 시가지 경관정비조례, 풍치지구조례, 광고물 등에 관한 조례, 자연풍경 조례 교토시의 신경관정책 5개 요인과 지원책은 다음과 같다.

① 건물의 높이

– 건물의 높이는 도시경관과 시가지의 환경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를 위해 높이 제한을 이전 보다 낮추고, 동시에 높이제한을 지역의 특성에 맞추어 세분화하였다.

– 역사적인 시가지, 산기슭 주택지, 공업지역 등으로 고도지구에 의한 높이의 최고 제한을 낮춘다.

– 도시전체의 높이 구성은 상업 업무의 중심지구인 도심부 건축물에 대하여 일정의 높이를 인정하고, 이 도심부에서 세 방향의 산기슭으로 감에 따라 점차로 높이의 최고 한도를 낮추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 도심간선도로변지구 : 45m – 31m

● 업무, 주거공존지구 : 31m – 15m

(그림3–7) 고도지구 건물 높이 개선

② 건물 등의 디자인

– 건물 등의 디자인(형태, 재료, 색채 등)은 경관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 이를 위해 규제지구를 이전보다 넓게 지정하고, 동시에 디자인 기준을 지역 특성에 맞추어 세밀하게 정한다.

– 경관지구의 확대 : 미관지구의 확대, 미관 형성지구의 신규지정

– 건조물 수경지구의 확대

– 풍치지구의 확대 : 세계문화유산주변 등으로 확대

– 지역특성에 맞는 디자인 기준의 상세화, 명확화 : 종별 기준에서 지구별 기준으로, 색채의 객관적인 기준으로 활용

– 공작물 규제의 강화 : 휴대폰 안테나, 태양광 발전장치 미관지구, 미관형성지구의 디자인 기준

- 지붕의 색채 : 기와는 원칙적으로 그을린 은색/동판은 소재색 또는 녹청색/동판이외의 금속판 및 기타 지붕재료는 원칙적으로 광택이 없는 짙은 회색, 광택이 없는 검정

- 외벽의 소재 : 주요한 외벽에 사용하는 재료는 광택이 없는 것(유리 및 자연소재는 제외)

- 발코니 : 발코니를 설치할 경우에는 건물의 벽에서 튀어나오지 않을 것, 단 낮은 건축물 또는 공공의 공터에서 보이지 않는 경우는 이에 한하지 않음

- 외벽의 색채 : 주요한 외벽에는 다음의 색채를 사용하지 않는다. 단, 착색을 하지 않은 자연소재는 제외로 한다. 적색계열의 색상으로 채도가 6을 넘는 것, 황적색 계열의 색상으로 채도가 6을 넘는 것

- 문, 담, 울타리 : 자주식 주차장이나 주륜장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문, 담, 혹은 울타리 등을 설치하여 거리의 연속성을 배려.

– 경관지구(미관지구, 미관형성지구)의 디자인이미지

(그림3–8) 연도형 미관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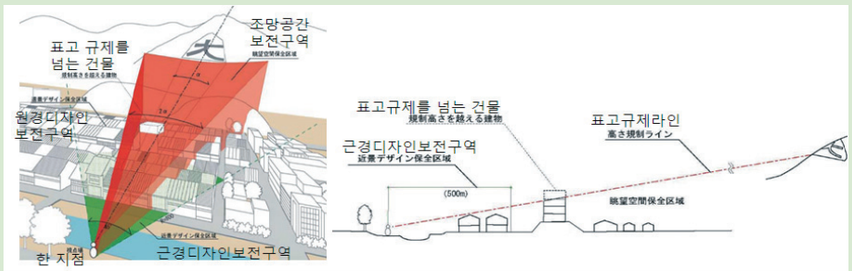
(그림3–9) 구시가지형 미관지구

(그림3–10) 역사유산형 미관지구

(그림3–11) 연도형 미관형성지구

③ 조망경관과 차경(借景)

- 2007년도 전국에서 최초로 “조망경관 창생조례”를 제정하여 38군데의 조망경관과 차경의 보전을 꾀한다.
- 세계문화유산을 포함한 역사적 자산주변과 시가지가 가까워 건축물 등의 높이와 디자인에 대하여 새롭게 규제하지 않으면 조망경관과 차경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는 38군데를 심의회에서 추출한다.
- 조망경관창생조례 : 건축물 등의 표고규제와 디자인 규제, 제안제도
- 조망경관을 보전, 창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조망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
- 조망경관보전지역은 각각 필요한 규제 내용에 따라 다은의 3구역으로 구분.
- 조망공간보전구역 : 한 시점으로 부터 시대상(視對象)으로의 조망이 차단되지 않도록 건축물 등의 최고부가 넘어서는 않되는 표고를 정하는 구역
- 근경디자인보전구역 : 한 시점으로부터 보이는 건축물 등이 훌륭한 조망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형태, 의장, 색채에 대하여 규제하는 구역
- 원경디자인보전구역 : 한 시점으로부터 보이는 건축물 등이 훌륭한 조망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외벽, 지붕 등의 색채에 대하여 규제하는 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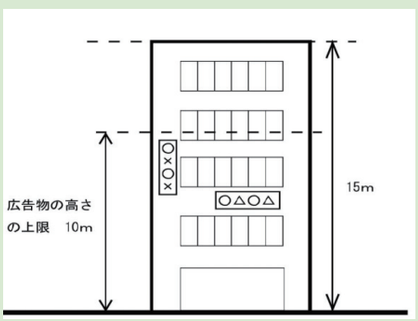


(그림3–12) 교토시 조망경관 보전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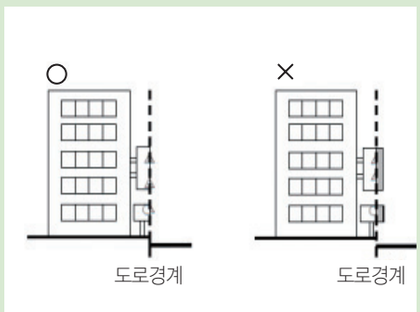
④ 옥외광고물

- 도시경관은 자연과 건물뿐만이 아니라 온갖 도시 활동에 의해 형성. 교토시에서는 시내 전역의 옥외광고물을 규제함으로써 품격 있는 아름다운 도시경관의 형성을 꾀하고 있다.
- 옥외광고물 규제 : 옥외광고물의 표시위치, 크기, 색채 등을 규제
  옥상에 설치하는 옥외광고물을 시 전체에 금지
  점멸조명의 옥외광고물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
  옥외광고물의 표시위치, 크기, 색채 등의 규제 강화
  도심부의 간선도로변 등의 도로상공에 돌출된 간판 금지
- 우수한 옥외광고물의 유도 : 허가기간의 연장, 허가기준의 완화, 우수한 옥외광고물 조성
- 위반 광고물 대책의 추진
- 옥외광고물 규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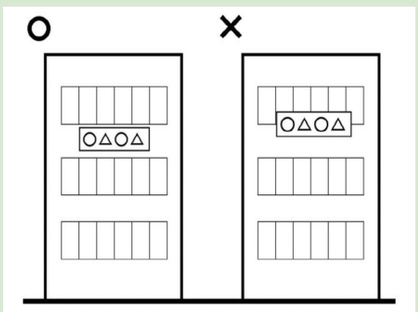
- 양호한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창출을 위해 옥상간판을 금지



- 간판에 표시할 수 있는 높이는 지역에 따라 정해진 기준과 건물의 2/30이하 중 더 낮은 쪽으로 함



- 도로의 상공공간을 개방하여 양호한 거리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일부지역에서는 간판의 도로돌출을 금지



- 창문 등 개구부와 벽에 걸쳐진 간판은 건물의 디자인을 손상하기 때문에 금지

(그림3-13) 옥외광고물 규제

⑤ 역사적인 거리

- 교토의 전통적인 건축양식과 생활문화를 전하는 쿄마찌야는 역사도시, 교토의 경관기반을 구성한다. 그 보전과 외관의 수리(修理), 수경(修景)에 대한 조성을 실시하고 있다.
- 지구지정제도의 활용 : 역사적인 거리가 남아있는 지구를 지정하여 지구내 건물을 보전함과 더불어 수리, 수경에 대하여 조성을 하고 있다.

- 안네이자카지구(약 8.2ha)

- 기온신바시지구(약 1.4ha)

- 사가토리이모토지구(약 2.6ha)

- 카미가모지구(약 2.7ha)

(그림3-14) 전통건조물군 보존지구(문화재보호법)

역사적경관보전수경지역(시가지경관정비조례)

- 료가츠지지구(약 37ha)

- 카미노쿄코가와지구(약 2.1ha)

(그림3-15) 전통건조물군 보존지구(문화재보호법)

- 건물 단독체로서의 보전책 : 경관중요건조물의 지정(경관법)
  - 건물을 경관중요건조물 등으로 지정하여 외관의 변경을 허가제로 함과 동시에 수리, 수경에 대하여 조성하고 있다.
  - 역사적 의장건조물의 지정(시가지경관정비조례)
  - 경관중요건조물을 지역의 핵으로 하여 "점"에서 "선", "선"에서 "면"으로 역사적 경관을 재생 한다.
- 쿄마찌야 거리만들기 펀드 개수조성모델사업
  - 쿄마찌야 거리만들기 펀드는 교토시와 국가의 지원, 시민으로 부터의 기부에 의해 창설된 쿄마찌야를 보전, 재생하기 위한 기금으로서 쿄마찌야의 개수(改修)를 목적으로 조성한다.

(그림3-16) 교마찌야 보전 · 재생

(5) 역사지구 재생계획

- 역사지구에 대한 새로운 발상을 통해 도시를 창조
  - 대표적인 접근방법으로 "Walking around town" 활용. 이 슬로건은 문유 회랑(文遊回廊)을 만들어 도시민이 문화로서 향유할 수 있는 도시 교토를 만들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유회랑(文遊回廊)이란 "교토에 흩어져 있는 역사적 장소와 유물 등을 이야기와 보행로로 연결하는 "문화 복도"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사람등은 도시내외부에 중요한 문화적 자산과 훌륭한 사당, 사원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1200년 동안의 역사를 걸으면서 삶의 일부로 느낄 수 있는 공간을 연결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는 공간이다.

이러한 노력은 확대되어 교토시를 둘러싼 산과 호수를 연계한 친환경 관광으로 연결된다.

– 문유회랑의 조성 및 기획주체는 '재단법인 교토시 문화관광자원보호재단'이다.

재단의 주요활동은 문화적이며, 관광적으로 가치있는 것들의 자원을 보존하고, 전통예술과 행위를 유지 전수하는 것을 도우며, 그러한 것들의 가치를 일깨우고, 기부금을 통해 펀드를 만드는 것이다.

– 문유회랑은 3개 부분(東山, 中京, 下京)으로 나뉘어 있으며, 동산(東山)지역의 문유회랑은 청수사 주변 지역에서 시작되어 산넨자카(産寧坂)를 지나 니넨자카(二年坂), 그리고 기온(紙園)지구에서 가모가와 하천과 만남. 이곳에서부터 중경(中京)지역의 문유회랑이 시작된다.

(그림3-17) 산넨자카

(그림3-18) 니넨자카

일본 교토

교토는 '아름다운 도시, 교토 만들기'를 목표로 주민, 기업, 행정이 협력체계를 형성해 도심을 재생해 나가는 모범적인 사례다.

아네야코지 마을의 경우 아파트가 건설되려고 하자 '아네야코지 마을을 생각하는 모임'을 결성해 아파트건설 반대운동과 함께 마을 만들기 운동을 시작했다.

마을 고유의 가치를 높이고자 간판이 어울리는 마을 만들기, 빛으로 이어지는 마을 만들기, 마을의 장인이야기 소개 등 다양한 이벤트와 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전문가를 단장으로하는 '지역공생 토지이용 검토모임'을 발족시켜 지역주민의 의견이 수렴된 아파트를 준공시켰다.

교토시는 마을만들기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과 마을만들기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하여 상담역할을 담당하는 전문가를 파견하여 주민활동을 지원하고 있고, 주민들은 마을규약을 만들어 지켜가고 있다.

마을만들기는 주민협의회가 중심이되고 행정은 조례를 만들어 지원하고 있으며, 다만 협의회 이전에 연구단계와 일련의 교육과정을 거쳐야 지원할수 있도록 하였다.

1. 드레스덴에 관한 기본정보

- 드레스덴 대성당 = 18세기에 건축된 바로크 양식의 교회로 성주 아우구스트가 작센지방을 다시 카톨릭화 하려는 목적으로 로마식으로 건축한 바로크양식의 교회로 질버범의 오르간과 작센가의 납골당이 함께 마련되어 있다. 오페라 하우스바로 옆에 있으며 5천평방미터에 높이 85미터로 작센지방에서 가장 큰 성당이다.
  주변에 츠빙거궁전과 젬퍼오페라, 독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광장으로 손꼽히는 연극광장등이 둘러싸고 있다. 1980년이루로는 마이센교회 지구의 성당이 되었으며, 독특한 양식과 모양이 바로크를 대표하는 건축물로 손꼽히고 있다.

- 프라우엔 교회 = 드레스덴의 상징이나 다름없는 이 교회가 정통으로 폭탄을 맞아 산산조각이 났다고 전해진다. 독일이 통일된 후 폐허더미에 불과했던 이곳에선 역사상 유래가 없는 대규모 복원 공사가 시작됐는데, 천문학적인 비용으로 인해 시 재정이 고갈되자 독일 전역의 기부금과 과거 폭격을 주도했던 미국, 영국의 지원으로 복원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

- 츠빙거 궁전 = 작센 왕국의 궁전으로 쓰이던 바로크 양식 최고의 건축물로서 "님프의욕조" 분수대와 기하학적인 정원이 돋보인다. 궁전내 미술관에서 라파엘로의 "시스티나의 성모 마리아", 티티안의 "돈을 바치는 바리세인", 루벤스의 "레다와 백조로 변한 제우스"와 렘브란트, 베르메르 등 거장들의 회화를 볼 수 있다.

- 드레스덴 성 = 르네상스 양식의 성으로 한때 왕가의 거주지 였으며, 성안에는 교통박물관, 프라우엔 교회, 브릴의 테라스 등이 있다.특히 괴테는 이곳을 '유럽의 테라스'라고 불렀으며 신구시가지와 엘베강의 전경을 내려다 볼 수 있다.
  아우구스트 거리(Augustusstrasse)에 있는 옛 왕궁마굿간 외곽벽면은 온건히 보존되었는데 이곳에 벽화 '군주의 행렬'이 있다. 이 벽화는 마이센 지역의 도자기 타일로 그려져 있고 높이 8m, 길이가 101m이다. 작센주의 역대 군주 30명이 일열로 행진하는 기마행진을 표현하는데 25,000매나 되는 타일이 쓰였다.

- 젬퍼오페라 하우스(Semperoper House) = 젬퍼 오페라(Semper Oper)는 19세기 말에 젬퍼가 설계한 르네상스 양식의 건축물로서,특히 밤에 조명이 비춰진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다.

이 오페라 하우스를 설계한 건축가이자 드레스덴의 수많은 건축물들을 설계한 유명한 건축가인 젬퍼(Semper)의 이름을 따서 만든 젬퍼 오페라는 이탈리아 신르네상스 양식의 화려한 오페라 하우스이다. 이 지역의 첫 번째 오페라 하우스는 1841년에 개관하여,1869년에 소실되었다. 이후 1878년에 다시 세워 지지만, 1945년에 다시 파괴되어 버리는 일이 자행된다.

드레스덴의 오페라 전통은 350년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지는데,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베버, 바그너 등의 수많은 작품들도 이곳 젬퍼 오페라 하우스에서 공연되었다.

- 엘베강 = 엘베강 유역은 18세기 초 아우구스트(August der Starke)에 의해서 대운하(Canale Gr–ande)로 알려지게 되었다. 19.5㎞에 이르는 엘베강 유역에는 700년에 걸쳐 들어선 문화적 가치가 높은 건물들이 한 데 어우러져 문화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드레스덴의 엘베강 유역은 세계유산 등재지침으로 알려져 있는 여섯개의 문화재 기준 중 네개를 충족시켰다. 일반적으로는 하나의 기준만 충족시켜도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간주된다. 기준 2에 따르면 드레스덴의 엘베강 유역은 유럽의 문화, 과학, 기술의 중심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이 곳의 미술품과 건축물, 정원, 조원 등은 18세기와 19세기의 중앙유럽의 발전상을 잘 보여준다.

엘베강 유역은 궁정 건축물과 그 화려함을 간직하고 있을 뿐 아니라 현대산업사회에서의 유럽 도시계획을 보여주는 시민적인 건축물과 산업유산도 많이 보유하고 있다. 또한 엘베강 유역은 빼어난 문화지대이며 바로크양식의 도시와 시외곽의 정원을 예술적 완성품으로 결합시킨 앙상블이라 할 수 있다.

- 문화의 궁전(Kulturpalast) = 문화도시라는 타이틀에 맞게 문화산업의 기반을 다지는 작업은 2003년 문화궁전(Kulturpalast)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며 가속화 되었다. 사실 이 문화궁전은 2003년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1969년 공연, 회의와 행사의 집(Konzert–, Kongress– und Veran–staltungshaus)이라는 이름으로 개관했다.

공연과 음악, 회의 시설부터 국제 회의 까지를 모두 아우를 문화 센터를 건립하고자 했던 지방정부는, 초기에 문화궁전 안에 드레스덴 필하모니 오케스트라를 정착시키면서 음악 공연 기능을 하는 문화센터로 문화궁전의 이름을 알렸다. 2003년 다시 시작된 대대적인 리모델링으로 문화 궁전은 연극전용 극장, 영화극장, 디스코텍과 식당, 전시관과 도서관, 운동센터와 각종 행사 공간을 갖춘 복합문화시설로 거듭나게 되었다.

문화궁전은 사실 콘서트와 회의를 위한 드레스덴의 공동체(Die Konzert– und Kongressgesellschaft mbH Dresden)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문화시설 중 한 가지 문화복합센터이다. 문화궁전은 시내한 중심가에 자리잡고 있으며, 그들이 관할하는 또 다른 문화 시설은 알브레차타베르그 (Albrech–tsberg)성이다. 대부분 독일의 고성들은 현대로 오면서 호텔 등으로 개조되거나 관광화 시키는데, 알브레차타베르크 성의 경우 이 단체가 문화복합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시내 중심가에 위치해 있고 다양한 관람객들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문화궁전에

는 모던한 콘서트나 국제회의장으로 사용하고, 시내에서 약간 떨어져 있으나 유네스코(UNESCO) 자연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다. 알브레차타베르크(Albrechtsberg)성은 중세의 분위기에 맞춘 클래식 공연과 콘서트를 위주로 공연이 이루어진다.

2. 체스키크롬로프에 관한 기본정보

- 체스키크롬로프 성(Zamek) = 체스키크롬로프 성은 체스키크롬로프와 그 역사의 시작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는데 13세기 중엽, 대지주였던 비텍(Vitek)가가 블타바 강이 내려다 보이는 돌산 위에 고딕 양식의 성을 건설함으로써 이 도시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옛 왕궁으로 쓰였던 이 건물은 두터운 돌을 쌓아 만든 것으로, 중세 귀족들의 생활상을 느낄 수 있는 방과 식당, 창고, 부엌, 접견실 등에 각종 공예품과 그림, 물품들이 보관되어 있다. 보헤미아 성으로서는 프라하 성 다음으로 규모가 큰 것이다.
  이미 700년이 흐른 고도로서의 체스키크롬로프를 상징하는 중요한 상징물이며, 이 도시의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는 유적으로서 하늘을 찌를 듯한 둥근 탑과 길다랗게 늘어져 있는 옛 건물들은 중세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3. 그라츠에 관한 기본정보

- 무어강 인공섬 = 오스트리아는 흔히 '디자인의 나라'라고 말할 정도로 건축물에서 일상용품까지 새로운 디자인으로 끊임없는 변신을 시도하고 있는데, 특히 그라츠에는 고정관념을 무너뜨리는 건축물이 많다. 그라츠 출신 미술 기획자 로버트 푼켄호퍼와 뉴욕 출신 건축가 비토 아콘치(Vito Acconci)가 탄생시킨 이 구조물은 현대미술관과 마찬가지로 시민의 '평화'와 '화합'의 상징이다.

  이 건물 외벽은 투명 유리로 되어 있어 내부에서 주변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한꺼번에 350명이 들어갈 수 있는 대형 구조물로서, 강물에 떠 있는 만큼, 물론 강물이 늘고 주는 데 따라 이 건물도 배처럼 뜨고 가라앉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곳에는 레스토랑과 카페, 공연장 등이 있어 다양한 문화행사가 열린다. 그리고 이 인공 섬을 강양안 동서 지역으로 연결하는 멋진 다리가 놓여 있어 시내 서쪽과 동쪽을 잇는 보행교 역할도 하며 강변에는 야외 무대도 설치되어 있어 다양한 공연이 주기적으로 열린다.

이 설치물은 2003년 1월 입수식에서부터 그라츠 시민들과 언론의 관심을 끌기 시작하였다. 이 인공섬은 2003년 이후 철거될 계획이었으며, 설계비에 철거비용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예상 외의 방문객과 시민들의 반응으로 현재 무르강에 아름다운 시설물로 남게 되었다.

무어강 인공섬은 풍경에 녹아들어 조화로운 형태와 더불어 주변과 하나의 공간으로 읽혀지는 공간의 유연한 흐름으로 표현되며, 또한 야외공연장의 객석, 카페의 인테리어 등이 하나의 통합된 이미지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

- 그라츠 대성당 = 그라츠 마을 남쪽에는 1438년에서 1462년 사이에 지어진 그라츠 대성당이 서 있다. 현재 성당이 있는 위치에는 원래 1174년 성 자일즈에게 바쳐진 교회가 있었다. 이 성당은 1564년에 궁정 교회가 되었으며 1786년에는 섹코의 주교 관할로 넘어가게 되었다. 성당을 설립한 프리드리히 3세의 문장(紋章)이 장식되어 있는 주출입구가 특히 아름답고 작은 광장에 면한 남쪽 외벽에는 1485년에 제작된 후기 고딕풍의 프레스코화 'Landplagenbild(저주의 그림)'가 남아있다. 이 그림은 세 번에 걸쳐 메뚜기의 습격을 받아 고통에 빠진 도시의 모습을 묘사한 그림이다.

  성당 내부 장식은 주로 웅장한 바로크 양식을 따르고 있다. 넓은 회중석과 성가대석 사이에는 좁은 개선문이 설치되어있으며 그 양 옆에는 1477년에 만들어진 두 개의 호화로운 성유물함이 있다. 성가대 석 중앙에는 1730년에서 1733년 사이에 제작된 아름다운 색깔의 대리석 제단이 놓여 있고 제단 뒤쪽에는 '성 자일즈의 기적'이라는 제목의 초상화가 장식되어 있다. 고딕양식으로 장식되어 있는 수도원 예배당에는 성 크리스토퍼의 벽화가 남아 있다.

- 중세 무기고 = 그라츠의 헤렌가세, 란트하우스 남쪽에 위치한 이 건물은 원래는 무기고로 사

용하기 위해 1642년에서 1644년에 지어진 것이었으나 현재 17세기의 무기와 갑옷 등이 보존된 무기 박물관으로 이용되고 있다. 특히 터키 전쟁 때에 28,000명의 군인들이 사용한 갑옷, 투구, 무기 등의 전시물이 진열되어 있다.

- 쿤스트하우스 = 그라츠(Graz)는 고색창연한 옛 성채와 성당, 붉은 지붕의 건축물과 좁은 골목길이 도시의 풍경을 이룬다. 도시의 젖줄인 무어 강은 여름엔 래프팅을 즐길 수 있을 만큼 수량이 풍부하다. 이 아름다운 강의 양쪽으로 전혀 다른 두 개의 도시 풍경이 펼쳐진다.

그라츠 시정부에선 이러한 두 지역간의 불화를 가능한 줄이고자 빈곤층 밀집 지역인 서쪽 지역을 예술로 재개발하기 위한 '아트존'으로 정했고 2004년 9월 약 5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쿤스트하우스를 지었다. 처음 이 건물을 짓기 시작할 때 많은 시민들이 도시 미관을 해친다고 반대했으나 독특하고 아름다운 쿤스트하우스가 완공된 후 누구나 가보고 싶은 관광명소가 되었다. 주변에는 카페, 재즈 바, 영화관, 콘서트 홀, 쇼핑센터 등이 들어섰고 그라츠의 문화의 새로운 광장이 되었다.

쿤스트하우스는 건축물에 대한 사람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발상으로 계획되었다. 4층짜리 건물은 유선형 모양에 청색이 감도는 아크릴 외장으로 지어졌다. 지붕 위에는 문어 빨판처럼 생긴 9개 촉수를 달았다.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매시 정각 10분 전에는 5분간 초저음의 진동음도 낸다. 마치 살아 있는 생물처럼 건물 자체가 움직이는 것이다.

독특하고 인간미 넘치는 외형과 색채의 건물 외관을 살펴보면 마치 우주선이나 연체동물 같다. 보라색을 많이 사용하고 울퉁 불퉁한 기이한 모습이 인상적이다. 현재 1층은 커피숍, 2층은 미술관으로 사용한다. 1층 입구에 들어서면 작은 분수가 오밀조밀 자리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색상이 여기저기 그려져 있다. 소장품 없이 다양한 현대미술의 실험장으로 자유롭게 운영되는 쿤스트하우스는 기존의 고정관념을 탈피한 새로운 형태의 미술관이다.

- 슐로스베르크산 = 구시가지 건물들을 지나면 슐로스베르크로 올라가는 입구인 슐로스베르크 광장(Schlossbergplatz)이 나타난다. 슐로스베르크는 그리 높지 않은 산이지만, 절벽으로 된 산을 휘감고 흐르는 무어 강이 있어서 방어 요새로서는 완벽해 보인다. 이 천혜의 요새는 수차례 외적과 싸웠고, 마지막 나폴레옹의 침입에 항전하다가 결국 이 산성을 해체하는 조건으로 전쟁을 끝냈다고 한다. 그래서 지금은 산성 모습은 보이지 않고, 당시 사용하던 시계탑과 종탑, 그리고 성채 등 일부 유적들만 남아 있다.

  슐로스베르크 광장 안내판에는 언덕을 올라가는 4가지 방법에 대해 설명해 놓았다. 첫째는 '크리에 그 슈타이그'라는 이름이 붙여진 광장에서 올려다 보이는 260개 지그재그 계단길로 올라가는 것이다. 두 번째는 산 다른 쪽에 있는 터널을 통해 산길을 걸어 올라가는 방법이다. 세 번째는 슐로스 베르크 광장에 있는 슐로스베르크리프트(Schlossberglift)라고 불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방법이다. 네 번째는 푸니쿨라(궤도열차)를 타고 언덕을 빙빙 돌아서 올라가는 방법이 있다.

참고문헌

- 조성태, 지방도시의 활성화를 위한 역사문화경관관리 방안 연구 : 일본 가나자와를 중심으로, 석사학 위논문, 경성대학교 대학원, 2007
- 고도육성사례조사자료집, 공주대 백제문화연구소, 2010
- 부여군, 부여군문화재보존센터, 부여 고도보존 홍보사업 국외사례 조사자료집, 2009
- 한국일보, 세계의 소프트시티를 가다. 그라츠 – 옛것과 새것의 조화로 이룬 사회통합, 2010
- Landeshauptstadt Dresden, 2010
- Graz UNESCO City of Design
- 오스트리아 그라츠시 홈페이지
- 드레스덴시청 도시개발국

• 참여연구진

연구책임	이충훈	선임연구위원	충남발전연구원
연 구 진	권영현	선임연구위원	충남발전연구원
	임준홍	책임연구원	충남발전연구원
	고승희	책임연구원	충남발전연구원
	김경태	책임연구원	충남발전연구원
	권미정	연구원	충남발전연구원

공 주 시	이열하	과장	공주시문화재과
	박연수	계장	공주시문화재과
	서용한	주무관	공주시문화재과
	신경애	학예사	공주시문화재과